

#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2023.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제 출 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귀하

본 보고서를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 세 원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2. 연구 방법 .....	6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8
제2장. 국내외 사례 .....	9
제1절. 국내 공예산업의 정의 .....	11
1. 공예의 정의 .....	11
2. 공예산업의 정의 .....	13
제2절. 국내 공예산업 관련 선행연구 .....	18
1. 공예산업의 분류 및 실태조사 선행연구 .....	18
2. 한계점 및 쟁점 .....	22
제3절. 공예산업 관련 해외사례 .....	24
1. 영국 .....	24
2. 미국 .....	27
3. 이탈리아 .....	31
4. 일본 .....	35
5. 시사점 .....	40
제3장. 공예산업분류의 개선(안) .....	43
제1절. 공예산업분류 특징 .....	45
1. 산업분류의 목적 및 특성 .....	45
2. 공예산업분류의 특징 .....	48
3. 공예산업분류의 한계점 .....	50

제2절. 공예산업분류 개선 .....	55
1. 기존 분류체계 유지 및 일부 변경 .....	55
2. 공예산업활동 중심의 분류 변경 .....	58
3. 공예산업분류 개선(안) 항목 .....	62
4. 공예산업분류 개선(안) 연계표 .....	64
<b>제4장. 조사표 개선(안) .....</b>	<b>65</b>
제1절. 조사표 분석 .....	67
1. 조사표 분석 목적 .....	67
2.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	67
3. 타 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	71
4. 조사항목 개선 필요사항 .....	73
제2절. 조사표 개선 .....	76
1. 조사항목 개선 방향 .....	76
2. 조사항목 변경(안) .....	77
제3절. 소결 .....	88
<b>제5장. 공예산업 실태조사체계 개선(안) .....</b>	<b>91</b>
제1절. 조사체계 개선 .....	93
1. 정확한 조사대상, 모집단 구축 .....	94
2. 국제 기준의 공예산업조사 작성 방향 .....	95
3. 다업종 통계산출 처리 방안 .....	95
4. 조사주기 단축 .....	95
제2절. 2024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추진 방향 .....	96
1. 분류체계 개선(안)을 반영한 실태조사 실시 .....	96
2. 타 통계와의 연계·활용 방안 모색 .....	97
3. 2024년 통계작성 진행 시 절차별 주요 사항 점검 .....	98
4. 기타 .....	99

참고문헌 .....	100
부 록 .....	103

〈표 2-1〉 「공예문화산업진흥법」과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 정의 비교 .....	12
〈표 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 정의 비교 .....	13
〈표 2-3〉 본 연구에서의 공예 .....	13
〈표 2-4〉 공예문화산업의 정의 비교 .....	16
〈표 2-5〉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문화산업의 정의 비교 .....	17
〈표 2-6〉 「공예산업 실태조사」공예산업의 영역 .....	18
〈표 2-7〉 본 연구에서의 공예산업 정의 .....	18
〈표 2-8〉 공예산업 분류 선행 연구 .....	20
〈표 2-9〉 우리나라 공예산업 분류체계 현황(2015년 이후) .....	21
〈표 2-10〉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 주요 내용 요약 .....	23
〈표 2-11〉 영국공예 정의의 시대적인 차이점 .....	26
〈표 2-12〉 영국 공예산업과 SIC/SOC 연 .....	28
〈표 2-13〉 2010년대 미국 공예의 기법 및 제품의 분류 .....	29
〈표 2-14〉 2010년대 공예품 제외 항목 .....	30
〈표 2-15〉 미국 공예산업과 관련한 주요 코드 .....	31
〈표 2-16〉 영국과 이탈리아의 전통공예 정의 및 분류 항목 .....	32
〈표 2-17〉 공예 분야별 발달 도시 .....	33
〈표 2-18〉 이탈리아 공예산업과 연계 가능한 주요코드 .....	35
〈표 2-19〉 일본의 지역별 특성화된 공예품(전통공예아오야마스퀘어(伝統工芸青山スクエア) 기준) ..	36
〈표 2-20〉 일본 전통공예품 지정 항목(업종별) .....	40
〈표 3-1〉 특수분류 제정시 검토 내용 .....	48
〈표 3-2〉 2022년 공예산업 분류체계(대분류 및 중분류) .....	49
〈표 3-3〉 2021년 기준 공예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추정결과 .....	51
〈표 3-4〉 예술산업분류 개선(안) : 대분류(미술산업) .....	53
〈표 3-5〉 (1안) 공예산업의 소재별 산업활동 기준 .....	56
〈표 3-6〉 (2안) 공예산업활동(가치사슬) 중심의 분류 기준 .....	59
〈표 3-7〉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 비교 .....	61
〈표 4-1〉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 항목 .....	70
〈표 4-2〉 문화예술분야 산업조사 조사항목 비교표 .....	74
〈표 4-3〉 공예산업실태조사 조사표 변경(안) .....	81
〈표 5-1〉 2022 공예산업실태조사 모집단 및 표본 현황 .....	93
〈표 5-2〉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 비교 .....	96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방향 .....	6
[그림 4-1] 공예산업 실태조사 목적 .....	78



# 제1장

---

## 서론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공예의 정의와 의미가 기존에는 전통과 예술에 중심을 두었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소득증대와 개인화된 소비패턴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 취미 등 실용 추구로 전환됨
- 공예산업은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등 잠재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
- 공예 및 공예산업의 변화에 따라, 공예인 및 공예품 디자이너는 현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공예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개인작가(1인 공방)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소규모 형태의 산업 환경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면, 공예를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적 정의 외에도 공예작품 창작·제작, 유통, 전시, 소비, 활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공예가 산업적 면모를 갖추고 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정책도 보다 체계적인 산업적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공예 관련 사업체의 경영과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 및 실무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공예산업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적 지원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공예산업 분류체계(2016)」를 근거로 3년 주기 실태조사를 통해 공예산업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음<sup>1)</sup>
  - 그러나 실태조사 수행 결과, 실제 공예산업의 규모를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특히, 1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모집단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오히려 공예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설계 또는 파악이 진행되지 않아 실제 산업 규모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발생함

1)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조사를 수행함

## 2.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예산업의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구축이 용이하도록 현실적인 공예산업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공예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조사표 제시 및 조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공예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통계청 승인통계 고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Ⅰ [참고] 공예산업 실태조사 법적 근거 :

#### 공예문화산업진흥법(2015.5.18. 제정) 제7조에 근거한 3년 주기의 정기 법정조사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1) 시간적 범위

- 본 연구는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분류체계 및 모집단, 표본틀 구축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시간적 범위는 2022년으로 설정함
  - 가장 최근에 진행된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2022년 조사이며, 2022년 공예산업실태조사의 분류체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공예산업 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구축됨
  - 2019년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분류체계 및 조사표가 거의 동일함
  - 따라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다만, 2022년 실태조사의 분류체계 및 조사표 설정 등의 배경 파악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의 자료도 활용함

#### 2)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공예산업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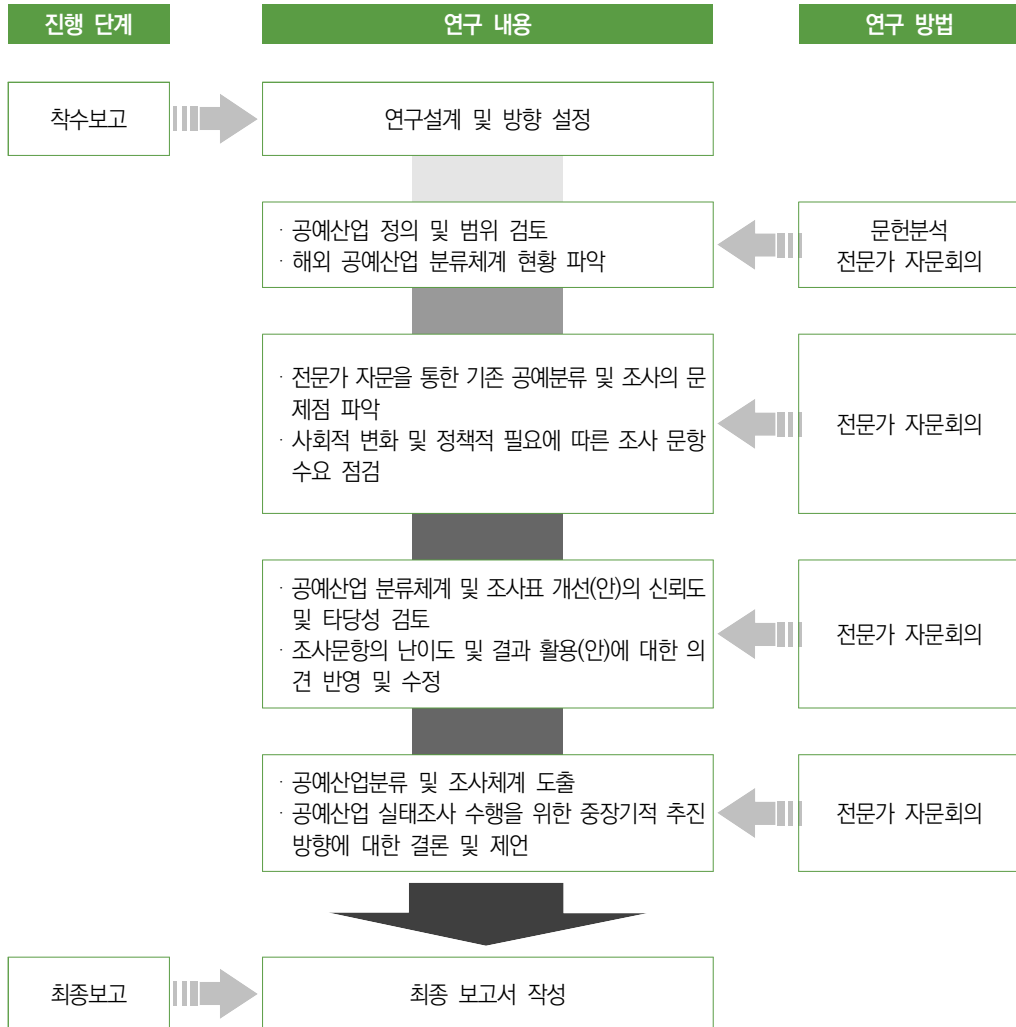
#### 3) 내용적 범위

-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국내 공예 및 공예산업의 정의·범주를 1차적으로 분석함
- 둘째, 국내 공예산업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공예산업 분류체계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파악함
- 셋째, 해외 4개국(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 공예산업 분류를 분석하고, 국가별 주요 특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공예산업 분류와의 상이점 등을 파악함
- 넷째,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특징과 한계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함
- 다섯째,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표를 파트별로 분석하고, 공예산업분류 개선(안)을 적용하여 향후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의 범위, 모집단 구축 및 관리, 조사주기, 조사방안 등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앞서 진행한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2. 연구 방법

### 1) 연구 추진체계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에 따라 추진함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방향



## 2) 추진 방법

- 공예산업의 분류체계 개선안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기존의 공예산업 분류체계 흐름과 구조를 이해함. 또한, 공예산업의 현황 및 환경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고, 공예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학계, 산업계 전문가 대상)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예산업분류(안) 및 조사표 개선(안)을 제시함
- 공예산업 실태조사 체계의 명확한 설정을 위해 모집단 구축에 대한 방안 마련과 향후 실태조사 수행 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함

## 제3절. 연구 기대효과

### 1) 공예산업 실태조사 통계 품질 향상

- 공예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를 통해 공예산업 현황에 대한 정책적 활용성의 틀을 제공하고, 산업통계 파악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표 개선으로 통계의 정확성 및 유효성을 향상하고자 함
- 정책 문항 수요 점검을 통해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공예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수, 종사자, 매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에서 공예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하도록 함
- 조사 체계의 단계적 개선을 통해 공예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공예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신규 사업 및 일자리 확보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함

### 3) 공예산업 활성화 및 진흥 제도적 지원

-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통한 공예산업의 활성화, 정책적 및 실무적 진흥 제도를 지원함
- 공예사업체의 제품 생산, 수출 및 수입 등 경영활동 계획의 근거자료를 제공함

# 제2장

---

## 국내외 사례

---

### 제1절. 국내 공예산업의 정의

1. 공예의 정의
2. 공예산업의 정의

### 제2절. 국내 공예산업 관련 선행연구

1. 공예산업의 분류 및 실태조사 선행연구
2. 한계점 및 쟁점

### 제3절. 공예산업 관련 해외사례

1. 영국
  2. 미국
  3. 이탈리아
  4. 일본
  5. 시사점
-



## 제2장. 국내외 사례

### 제1절. 국내 공예산업의 정의

#### 1. 공예의 정의

##### 1) 사전적 정의

- 공예(工藝)의 사전적 정의는 ① “조형 미술의 하나로 실용적 물건의 본래의 기능(機能)과 미적 장식(裝飾)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염직, 칠기, 도자기 따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는 것(다음 한국어사전)”, ② “기능과 장식의 양면을 조화시켜 직물, 염직, 칠기, 도자기 따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네이버 국어사전)” 등으로 확인됨
- 사전적 의미로서의 공예는 ① 조형 미술<sup>2)</sup>이며, ② 물건 본래의 기능에, ③ ‘기술 또는 기교’를 포함한 미적 장식을 더하여,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즉, 공예는 “물품 고유의 기능에 숙련된 기술과 장식적인 가치”를 부가하여, “기능성(機能成)과 장식미(裝飾美)를 갖춘 쓰임새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능력)”로 정의할 수 있음

##### 2) 법적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2015. 5. 18.)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공예”의 개념을 최초로 정의를 제시한 법률이며, 해당 법에서 제2조(정의) 제1항에서 “공예”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음

#### 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조형 미술은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에 형태를 만드는 예술.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에 예술적 형상을 창조하는 회화·조각·건축 따위가 있다.”(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한 “공예”는 사전적 정의의 “공예”와 거의 유사하나, 제작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공예의 제작 방식을 “수작업”으로 명시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 3)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의 정의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공예”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의 “공예” 정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맥을 따르고 있음

〈표 2-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 정의 비교

구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공예의 정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

-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공예산업 실태조사」(2011년, 2012년)에서는 “공예”의 정의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공예산업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제시되어 있으나 “공예”의 정의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전제되는 공예의 정의는 2015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등장하였으며, 각 연도별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공예”는 〈표 2-2〉와 같음

〈표 2-2〉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 정의 비교

구분	2011년,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공예의 정의	없음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
관련 근거	없음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5 공예산업분류체계 개선 연구」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6 공예산업분류체계 개선 연구」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공예산업실태조사개선방안 추진 연구」

#### 4) 공예 정의에 대한 정리

- 우리나라에서 “공예”의 정의가 법률로 정리된 시점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2015년 제정되면서 부터임. 이에 2011년과 2012년에는 “공예”의 정의가 생략된 상태로 「공예산업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법 제정 시점에 맞추어 2015년 조사부터 “공예”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예”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과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공예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되, 향후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개선(안)과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설계 방향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고찰을 통해 정리하고자 함
- 공예 관련 정의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수작업’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공예품은 ‘순수 예술품’이 아닌 ‘실용성’을 전제로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

〈표 2-3〉 본 연구에서의 공예

구분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공예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의미한다.</li> <li>*기계공정 만으로 생산된 것은 ‘공예’라고 볼 수 없으며, 공예품은 잠재적으로 실용 가능해야 한다.</li> </ul>

## 2. 공예산업의 정의

### 1) 사전적 정의

- “공예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공예”의 정의에 이어, “공예산업”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함. 그러나,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는 “공예산업”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산업”의 정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전적 의미에서의 “공예산업”을 확인해보고자 함
- 산업(産業)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유용한 여러 가지 물자나 용역을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경제용어(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② “인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생산적(生産的) 활동, 일반적으로 물적 재화의 생산과 더불어 서비스의 생산을 포함”(네이버 두산백과)” 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어 있음
- 정리하면, 산업은 ① 인간이(주체), ② 살아가기 위해(목적), ③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활동, ④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야를 뜻함. 다시 말해, 산업이라는 용어는 “모든 분야의 생산적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것인 동시에 전체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산업의 정의가 생산적 활동 전반과 서비스를 의미하므로, 공예산업은 “공예로 이루어진 산업”이라는 개념보다 “산업으로서의 공예”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2) 법적 정의

- “공예산업”이라는 용어는 앞서 사전적 정의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법적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없음. 공예와 관련된 유일한 법령인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공예 관련 산업을 “공예문화산업”으로 정의함
- 기존의 연구 및 조사에서 “공예산업”과 “공예문화산업”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법령에서는 “공예문화산업”에 한하여 정의되어 있음.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공예문화산업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뜻함

### Ⅰ [참고] 공예산업 실태조사 법적 근거

#### 관련 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공예 관련 공예 관련 산업에 관한 정의는 1997년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2023.8.8., 타법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함

### Ⅰ [참고] 공예문화산업의 정의

#### 관련 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약칭 : 문화산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 중략 …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 중략 …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문화산업에서 공예와 관련된 산업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2조제1호마목)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2조제1호자목)” 등이 해당됨
- 다만, 문화산업에서의 “공예”는 문화재 및 전통공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또한, 공예문화산업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공예의 주요 요건 중에 하나로 “소재”가 언급되었으며, 공예 기법을 활용한 결과물(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설명함
- 이와 같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공예는 “문화산업”의 한 영역으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으로 이어져 “공예문화산업”으로 정의됨
- “공예문화산업”의 정의는 ①기술적인 영역(공예), ②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영역(공예품), ③공예와 공예품의 생산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서비스(공예문화산업)로 이어짐. 따라서 “공예문화산업”은 정형화된 물품(상품)의 생산이라고 한정하기 보다는,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의 산업 서비스를 포괄하는 영역에서의 산업임

### 3)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의 정의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공예문화산업”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공예문화산업” 정의를 기반으로 함

〈표 2-4〉 공예문화산업의 정의 비교

구분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공예 문화 산업의 정의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현재와 같은 “공예문화산업” 정의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된 2015년 조사임. 2015년 이전 조사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
- 2015년 이전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산업”의 정의는 ①‘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2011년 조사), ②공예를 기반으로 하는 유,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 및 그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2012년 조사) 등으로 정의됨

〈표 2-5〉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예문화산업의 정의 비교

구분	2011년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공예 산업 정의	“공예산업”은 ‘공예’라는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과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공예산업”은 공예를 기반으로 하는 유,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 및 그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	“공예문화산업”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의 개발·창작·제작· 유통·전시·소비· 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공예문화산업” 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 유통·전시·소비· 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공예문화산업” 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 유통·전시·소비· 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①협의적 공예산업 : 공예산업 (사업체) ②광의적 공예산업 : 공예산업 (사업체) + 개인/작가 + 취미공예 종사자	① 공예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과 주체 ②제조, 유통 등 유형의 공예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산업 활동과 생산단위 ③수공이 아닌 기계화된 방식으로 공예품을 양산하는 제조활동 및 생산단위	①협의적 영역 공예산업 : 창작, 제작, 유통/판매(소량) ②광의적 영역 공예산업 : 기획, 유통/판매(다량), 소비/활용	①협의적 영역 공예산업 : 창작, 제작, 유통/판매(소량) ②광의적 영역 공예산업 : 기획, 유통/판매(다량), 소비/활용	①협의적 영역 공예산업 : 창작, 제작, 유통/판매(소량) ②광의적 영역 공예산업 : 기획, 유통/판매(다량), 소비/활용
관련 근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중소기업진흥 에 관한 법률」	「2012년 공예백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15 공예산업분류체 계 개선 연구」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2016 공예산업분류체 계 개선 연구」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산업실태 조사개선방안 추진 연구」
비고	공예산업	공예산업	공예문화산업	공예문화산업	공예문화산업

- 2011년의 공예산업은 공예산업 종사자 혹은 주체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협의적 영역, 광의적 영역이 구분되었음
  - 협의적 공예산업은 “공예산업(사업체)”, 광의적 공예산업은 “공예산업(사업체) + 개인/작가 + 취미공예 종사자”로 정의
- 2015년 이후「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공예문화산업” 영역은 아래와 같음
  - 협의적 영역은 “창작, 제작, 유통/판매(소량)”, 광의적 영역은 “기획, 유통/판매(다량),

소비/활용”으로 구분

#### 4) 공예산업 정의에 대한 정리

- 우리나라에서 “공예문화산업”의 정의가 법률로 정리된 시점은 2015년「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기반이 됨.「공예문화산업진흥법」제정 이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근거로 “공예산업”을 정의함. “공예산업”의 정의가 “공예문화산업”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짐
-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공예문화산업”을 <표 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영역(협의적 영역, 광의적 영역)의 “공예산업”으로 구분함. “공예산업”의 두 영역은 주산업(협의적 영역)과 연관 산업(광의적 영역)으로 나눈 것으로,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주산업에 해당되는 협의적 영역에 해당됨. 광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공예산업 연관 산업은 종합적인 통계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표 2-6>과 같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표 2-6> 「공예산업 실태조사」공예산업의 영역

구분	협의적 영역	광의적 영역
개념	- 창작, 제작, 유통/판매(소량)	- 기획, 유통/판매(다량), 소비/활용
정의	-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 및 기법,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 및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 제품을 직접 제조 및 유통(소매)하는 산업	- 공예품의 직접 제작 외, 공예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유통(도매), 인력양성, 전시, 수리, 출판, 보험, 운송, 디자인 전문기획 등의 연관 산업
비고	- 현재 광의적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출판, 보험, 운송, 기획, 전시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본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함	

-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공예산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분류체계” 연구에서는 협의적·광의적 영역 모두 포함하고, “실태조사”는 협의적 영역으로 한정함. 단, 공예산업 분류체계 및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 연구를 통해 광의적 영역의 공예산업이 포함될 수 있음

<표 2-7> 본 연구에서의 공예산업 정의

구분	2023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공예산업의 정의	- (분류체계)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 - (실태조사)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 및 기법,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 및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 제품을 직접 제조 및 유통(소매)하는 산업

- 공예는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예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공예산업은 전문적 생산 영역에서만 국한되지 않으며, 비전문적인 생산 및 교육을 통해 생신과 소비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제2절. 국내 공예산업 관련 선행연구

### 1. 공예산업의 분류 및 실태조사 선행연구

#### 1) 공예산업 분류 선행 연구

- 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 기업체 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경제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갖는 산업활동의 집합"(통계청, 2023)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에 의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구조 체계는 대분류(1자리, 영어대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구분
- 현재, 우리나라의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비롯한 공예산업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분류체계는 통계청에서 공인을 받은 공식 분류체계는 아니며, 정부 차원의 공인된 공예산업 표준분류체계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임
- 공예산업 분류체계 연구는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소재와 용도의 구분에 따르게 된 것은 (재)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국내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구축 및 공예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2003)」 보고서의 '신공예산업분류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일부 변화의 과정은 거쳐 왔지만, 2023년 현재까지도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대분류는 '재료(소재)'에서 시작함
- 공예산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시점인 2015년을 전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공예산업 분류 관련 주요 연구는 <표2-8>과 같음
- 2003년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구축(신공예산업분류체계 마련) → 2014년 신공예산업분류체계 한계점 개선(2013년 공예산업분류체계 제언) → 2015년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2003, 2013년 등에 마련된 공예산업분류체계 검토) 순으로 진행
-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의 시발점이 된 신공예산업분류에서는 공예산업 분류체계를 소재(도자, 유리/

속, 금속, 목/죽세, 종이, 섬유, 가죽, 기타)와 용도(가구, 생활소품, 주방용품, 장신구/잡화, 문방용품, 기타)로 구분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매칭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한 공예산업 분류 선행연구 <표2-8>의 결과는 각각 「공예백서」 및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활용되는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기반이 되었음

〈표 2-8〉 공예산업 분류 선행 연구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비고
1	국내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구축 및 공예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문화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표준산업분류, HS코드 등 기존 산업분류체계를 분석하여 공예문화산업 및 공예문화관광상품에 적합한 분류체계 구축</li> <li>• 국내 공예문화산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예문화산업 제작 및 유통업체 조사, 소비자 조사 및 대표적인 공예거리 인사동의 유통업체 현황 및 유통인구 조사</li> <li>•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예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정책 및 지원사업 평가모델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공예지원사업 평가모델 및 평가 지표 개발</li> </ul>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3)
2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예와 공예산업의 정의와 범주 검토</li> <li>• 신공예산업분류체계(2003)의 구조와 한계점 고찰</li> <li>• 공예산업분류체계를 위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 무역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목적분류체계인 산업디자인분류체계를 연관 사례로써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li> </ul> </li> <li>• 2013년 공예산업분류체계 제안</li> </ul>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4)
3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예산업 분류체계 문제점 및 제약점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부터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 및 2003, 2013년 등에 마련된 공예산업분류체계 검토</li> </ul> </li> <li>• 공예산업과 유사한 산업의 산업분류체계 및 산업통계 구성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사례 4개 이상 조사 및 분석</li> <li>- 구성형태, 개선추이, 모집단 정의 및 산정방법, 표본추출방법 등 조사</li> </ul> </li> <li>•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공예산업분류체계 검토 후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제시</li> <li>- 공예산업 환경변화 및 산업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 도출</li> </ul> </li> </ul>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5)

- 우리나라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재료(소재) 관점에서 주로 분류되어 왔음.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재료(소재) 외에도 역사에 따라 현대와 전통, 시대에 따라 전승과 전통으로 분류되며, 공예품의 용도, 가격에 따라, 공예작품 생산 활동의 목적과, 업종 분류 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음
- 공예산업실태조사의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2015년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과 후술할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기준이 재료(소재)로 되어 있음

- 2015년 실태조사부터 2022년 실태조사까지 동일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 선행자료(소재) 기준의 공예산업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정 통계로 언급하고 있는 「공예산업실태조사」의 분류체계를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음. 단, 소재 중심의 대분류가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소재 기준의 분류체계가 필요충분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전문가 및 관련 분야 관계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현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활용성과 공예산업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신뢰·성·활용성 제고
- 현재 재료별 분류는 대학의 전공 개설에도 영향이 있음. 공예학과의 일부 세부 전공은 재료명을 기준으로 학과가 편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금속 및 도자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 학과명에 공예 소재가 포함된 경우로 ‘금속공예학과’, ‘도자공예학과’, ‘도예, 유리과’, ‘목조형기구학과’, ‘귀금속보석공예과’ 등과 같은 전공 개설 명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표 2-9〉 우리나라 공예산업 분류체계 현황(2015년 이후)

구분	자료명	대분류		비고
1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2018~2020)	재료별	금속, 도자, 목/칠, 섬유, 유리, 석, 종이 등	문화체육관광부 (2017)
		용도별	거실, 주방, 생활용품 등	
		역사별	전승, 현대	
		가격대/ 목표시장별	명품, 생활	
		가치사슬	공예소재 > 공예생산 > 공예유통 > 공예 관련 서비스	
2	공예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연구	시대	현대, 전통	한국공예 · 디자인 문화 진흥원 (2019)
		재료	금속, 도자, 목/칠/죽세, 공예, 유리/석, 가죽, 종이, 기타	
		용도	기구, 생활소품, 주방용품, 장신구/잡화, 문방용품, 장식품, 기타	
		활동	예술, 산업, 취미	
3	2021 공예백서	재료별	도자, 유리, 석, 종이/한지, 섬유, 가죽, 특수/복합소재	한국공예 · 디자인 문화 진흥원 (2023)
		업종(중분류)	제조업, 유통업, 수리업, 원재료 가공업 등	
4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재료별	도자, 유리, 석, 금속, 귀금속/보석, 목, 죽세/초경, 종이/한지, 섬유, 가죽, 특수/복합, 소재, 기타, 공통	한국공예 · 디자인 문화 진흥원 (2023)
		업종(중분류)	(소재별) 제조업, 유통업, 수리업, 원재료 가공업 등 (공통) 종합 도소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2) 공예산업 실태조사 선행 연구

-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공예산업 진흥법」(제7조)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I [참고]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근거

#### 관련 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실태조사)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예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된 『국내 공예산업 현황 실태조사』는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모태가 된 조사로, 해당 조사에서는 공예업체 모집단과 조사대상 및 표본설계 등이 일관성이 없었음. 이와 같은 기존 조사들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공예산업 실태조사』가 2007년 기준조사로 새롭게 시작됨
- 그러나 『공예산업 실태조사』에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남아 있었고, 특히 공예산업체 모집단 확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여, 조사 시행 약 10년 만에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가 통계청에서 수행됨
- 해당 연구에서는 공예산업 모집단 확정을 위해 ① 공예산업 모집단 확정을 위해 공예산업 특수분류체계 보완, 공예산업체 현황분석, 공예산업체 마스터표본 구축방안을 제시하였고, ②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통계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을 개선하는 한편 ③ 시계열 유지 등 지속가능한 공예산업 모수추정방법을 검토하였음

〈표 2-10〉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자료명	주요 내용	비고
1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예산업실태조사의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예산업 모집단 확정을 위해 공예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보완, 공예산업체 현황분석, 공예산업체 마스터표본 구축방안을 개선방안 제언</li> <li>공예산업실태조사 조사방법론 개선 공예산업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공예산업실태조사의 기획 및 설계 개선</li> </ul> </li> <li>공예산업의 분류체계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공예산업분류체계를 점검·보완</li> </ul> </li> <li>국가승인통계 지정에 적합한 조사구조 구축</li> </ul>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2015.12.)

## 2. 한계점 및 쟁점

- 공예산업 분류 체계 관련한 연구는 2003년 「국내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구축 및 공예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이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초석이 됨. 이어, 2014년의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와 2015년의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분류체계 연구와 개선 방안」을 통해 현재의 공예산업 분류체계로 이어지고 있음
-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기존 연구 결과 및 본 연구의 시간적 관점에서 볼 대 약 10년 단위로 개선방안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 2003년, 2014~2016년에 이어 2023년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재료(소재) 공예산업 분류체계를 고찰해보고자 함
-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재료, 용도, 시대(역사), 업종 등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재료(소재)를 기준으로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 현재의 분류체계는 2014년~2016년 공예산업 분류체계 연구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소재 → 소재별 산업 유형 → 소재별 산업의 가치사슬(산업구조)' 단계로 분류됨. 소재 중심 분류체계 이전에는 '제조/유통 → 소재 → 용도 → 형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2003년 신공예 산업분류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함
- 소재별 기준에 따른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이나, 공예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소재와 관련된 조사항목은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임. 분류체계 상에서는 소재가 공예산업의 분류에서 대분류의 위치에 있고, 이를 기반으로 중분류와 소분류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소재가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와 실태조사 간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에서는 공예산업의 분류체계에 있어서 소재가 대분류로서의 구분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따라서, ① 현재의 소재 중심의 분류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방안, ②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수정하는 방안 또는 ③ 제조/유통을 대분류로 하는 업종 분류 중심의 분류체계, ④ 혹은 이 외의 분류체계 방안 등이 타당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의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는 공예산업 실태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방법론 개선이 주요 사안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함
- 현재 「공예산업실태조사」의 조사문항 수가 많고, 정책적 이슈에 따라 조사문항의 변동 또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조사표(설문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조사표 정비는 기존의 조사문항을 기반으로 하되, 시대적 흐름과 공예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조사표에 벤치마킹,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부처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 시간은 감축’하고, ‘필수적인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시계열이 유지될 수 있는 조사표의 설계가 필요함. 정책적 이슈에 필요한 조사문항은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 목적과 방향의 일관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3절. 공예산업 관련 해외사례

- 주요 공예선진국으로 대표하는 4개국(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은 공예산업의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정책적 지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지역 기반 공예 클러스터 중심으로 활성화된 공예문화산업의 두각을 보여줌
- 국가별 공예, 공예인 및 공예품에 대한 정의는 공예와 관련한 모든 개발, 창작·제작, 유통, 전시, 소비, 활용 등 가치사슬 체계를 이해함에 있어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러나 현재까지 영국을 제외하고는 공예산업의 범주 및 구성체계를 해당 국가의 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연계하여 공고화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 공예산업분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하나,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주요 국가별 공예산업 활성화의 흐름, 공예산업의 특징 및 중요 사항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공예산업분류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4개국 공예의 내용 분석은 국내외 문헌, 공예 협회 웹사이트 및 공예 전담 기관의 공식문건을 통해 고찰하고자 함. 즉, 각국의 공예의 정의와 특징, 공예산업 현황, 공예산업분류(안) 등을 알아보고, 국내 공예산업분류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공예산업분류에 반영 가능한 영역을 검토, 나아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영국

### 1) 공예의 정의와 특징

- 영국에서 공예란 기술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되며, 공예품은 소재(유리, 도자기, 직물, 철, 석, 목, 보석류 등)를 이용해 제작, 판매를 위해 재공급되는 상품을 의미함. 기존 수공업 전문 공예인들의 생산/판매에만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 분야가 아닌 일회성 작품, 계속 존재하는 예술작품, 전통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 전통기술을 응용/장식한 작품, 소재와 제작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목한 작품까지 창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예<sup>3)</sup>로 정의할 수 있음
- 영국 공예의 정의는 시대적인 차이점을 보임. 2006년 영국의 ‘fine craft(순수 공예)’는 ‘cutting-edge craft(최첨단 공예)’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어, 재생산 또는 복원을 해서는 안 되고, 혁신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미적 비전을 구현한 실험적인 공예를 뜻함. 또한, 2010년 영국의 ‘contemporary craft(현대공예)’는 현재 활동 중인 공예 제작자가 최신의 수공업 기술을 가지고 제작, 생산한 독창적인 수공예품을 의미하였음<sup>4)</sup>

3) 코트라, 「미국」, 『해외공예현황: 공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5, p. 124.

4) Crafts Council (2020), The Market for Craft Commissioned by the Crafts Council and Partners

- 영국 공예 관련 대표기관인 영국 공예 위원회(UK Crafts Council, UCC)가 2020년 발행한 연구 자료에 ‘craft(공예)’는 “공예 제작자에 의해 생산된 독창적인 수공예 기법의 결과물”을 의미함. 흔히 사용되는 재료뿐만 아니라 고급 품질의 공예 재료, 특이한 소재 등을 이용해 공예인이 손으로 직접 제작한 공예품이 해당됨<sup>5)</sup>. 대표적인 공예품에 바구니, 도자기, 가구, 유리, 보석류, 금속 세공품, 종이, 직물, 목재 등이 포함됨
- 영국 공예는 ‘공예’라는 단어에 한정하지 않고, ‘그래픽’, ‘디자인’의 용어 등을 추가/복합 사용하여 공예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sup>6)</sup>, 동시에 ‘예술성’과 ‘기능성’의 의미를 포괄함

〈표 2-11〉 영국공예 정의의 시대적인 차이점

구분	2006년	2010년	2020년
공예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e craft(순수 공예)’는 질적인 수준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현대 공예 작품 또는 최첨단 공예 작품</li> <li>• 재생산, 복원 불가</li> <li>• 재료 사용에 있어 혁신적이고 미적비전이 구현된 공예로 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temporary craft(현대공예)’는 현재 활동 중인 공예 제작자가 최근에 제작, 생산한 독창적인 수공예품으로 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aft(공예)’는 공예제작자가 손으로 직접 제작한 독창적인 수공예품으로 정의</li> <li>• 공예품 품목에 바구니, 도자기, 가구, 유리, 보석류, 금속 세공품, 종이, 직물, 목재 등 포함</li> </ul>

## 2) 공예산업 현황

- 영국 공예 위원회가 발간한 영국 공예산업의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치 분석 보고서(2020)<sup>7)</sup>는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공예산업 관련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근간으로 함. 2006년과 2010년 영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와 달리 2019년에는 영국 전역에 걸친 공예산업 설문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발을 확대하려는 영국 정부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영국 전통공예 관련하여, 2023년 Really Interesting Objects CIC 는 스코틀랜드 지역 전통공예 부문의 더 깊은 이해를 실현하고자 Traditional Arts & Culture Scotland (TRACS), Creative Scotland, Craft Scotland, Museums Galleries Scotland를 대신하여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공예제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sup>8)</sup>. 조사표는 총 19개 문항으로, 12~19번 문항은 주로 도구, 재료, 작품 판매, 기술 전수 및 견습 과정을 다루는 질문임
- 정리하면, 전통공예 부문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스코틀랜드 전통공예에

5) ibid.

6) 공예를 표기함에 있어,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art, craft&design’,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은 ‘Arts and Crafts’로 표기

7) Crafts Council (2020), The Market for Craft Commissioned by the Crafts Council and Partners

8) Scottish indigenous craft(<https://www.scottishindigenouscraft.org/survey>), 2023.08.10.접속

대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영국 전역에 걸쳐 전통공예나 문화유산 관련 공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영국 공예산업의 동향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3) 공예산업 분류체계

- 영국표준산업분류체계 (The United Kingdom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UK SIC)는 경제 활동 유형별 사업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최대 5자리 코드를 사용하여 산업을 분류하는 체계임. 1948년도를 시작으로 총 7차례 개정 (1948, 1958, 1968, 1980, 1992, 1997, 2003) 되었으며, UK SIC 2007이 최근 자료임. 또한, 영국 표준직업분류체계 (The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는 1990년도를 시작으로 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하며, SOC 2020이 가장 최근 자료임
- 영국공예청은 1990년대 공예산업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00년에 공예분류체계를 개정하였음. 현재 영국의 공예산업분류체계는 TBR(Trends Business Research Ltd)과 영국 공예 위원회 (UCC)의 자체분류(2013)를 근간으로 함
-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미디어와 스포츠 분야까지 총괄하는 부처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9개 항목(①비주얼아트, 음악, 무대예술 ②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③영화, 영상, TV, 라디오, 사진 ④출판 ⑤IT,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⑥공예 ⑦건축 ⑧디자인 ⑨광고, 마케팅)으로 분류하고<sup>9)</sup>, 공예를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수공업과 기계공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다고 밝히며, UK SIC 코드와 연계 시 ‘주얼리 제조[32.12]’만을 공예의 범주로 구성함
- DCMS는 공예의 범주 내 1개의 산업분류 코드, 5개의 직업분류 코드를 인정함. 그러나 산업분류 코드 연계 시 ‘주얼리 제조업[32.12]’만을 포함한다는 점은 영국 공예산업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보아 공예산업의 실태와 현황이 밀도 있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실제로, TBR과 UCC는 2013년, 2014년에 걸쳐 제책/제본 관련 SIC/SOC 코드<sup>10)</sup>,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등 기타 다른 코드를 공예산업을 정의하는데 연계하여 사용할 것을 요청함<sup>11)</sup>. 그러나 현재까지(기준 2023년) ‘주얼리 제조업’ 외 다른 코드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새로 개정된 부분이 없기에, 전체 공예산업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한계가 있음

9)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2016

10) SIC 1814 Binding&Related services, SOC 5423 Print finishing and binding workers

11) Defining and measuring craft: a review for the Crafts Council, 2014

〈표 2-12〉 영국 공예산업과 SIC/SOC 연

구분	SIC 2007 (산업분류체계)	SOC 2020 (직업분류체계)	비고
Craft (DCMS)	32.12 보석 및 관련제품 제조업	5212 금속판 작업자, 대장장이, 주형공 및 관련 직종	공예로 인정
		5419 섬유, 의복 및 관련 거래	
		5441 유리 및 도자기 제작자, 데코레이터 및 가공업자	
		5442 가구 제작자 및 기타 공예 목공예가	
		5449 기타 숙련된 기술자	
Craft (DCMS+) ** TBR/UCC	18.14 제책	5412 덮개류 제작자	추가 요청
	23.4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31.09 기타 가구 제조업	5423 인쇄 마무리 및 제본 작업자	
	95.24 가구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처럼 공예를 표기할 때, ‘공예’라는 단어에 한정하지 않고 ‘아트’, ‘디자인’, ‘그래픽’의 용어를 추가/복합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책 혹은 제본과 관련한 SIC/SOC 코드는 영국 공예산업 범주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국내 공예산업 분류에도 반영 가능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2. 미국

### 1) 공예의 정의와 특징

- 미국에서 공예의 사전적인 정의는 뛰어난 손재주와 예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 또는 활동으로<sup>12)</sup>, 공예품의 범위가 작가의 손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진 전통 수공예부터, 아마추어의 미적 감각이 표현된 취미공예품, 기업이 만들어낸 대량 생산품까지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음
- 영국과 비교해 공예 분야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전통공예나 향토공예 관련 분야가 넓게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American Craft Council을 비롯한 공예전문기관에서도 공예품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sup>13)</sup>

12) Merriam webser,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craft>

13)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3). 국내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구축 및 공예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 p.5.

- CODA(2011년)가 제시한 미국 공예분야의 기법별 분류는 17가지, 제품별 분류는 13가지<sup>14)</sup>로, 제품 분류 항목에서 건축부자재, 도구, 부속품 등이 공예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눈에 띈. 이는 미국 공예산업이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3〉 2010년대 미국 공예의 기법 및 제품의 분류

기법의 분류	제품의 분류
재봉, 퀼트, 스티치 (Sewing, Quilting, Stitching)	책, 카드 (Books, Cards)
니트, 크로셰 (Knitting, Crochet)	조명 (Lighting)
보석세공(Jewelry making)	옷(Clothing)
목공(Woodworking)	지갑, 액세서리(Purses, Accessories)
장식화(Decorative painting)	침구, 테이블 등의 직물 (Textiles for bed, table, etc)
구슬 세공(Beadwork)	보석류(Jewelry)
종이 재단, 재본(Paper cutting, book making)	장난감, 인형(Toys, Dolls)
섬유 그림(Fabric painting)	건축 부자재(Architectural details)
도자, 도기(Ceramics, pottery)	가구(Furniture)
양초제작(Candle making)	주방, 테이블웨어(Kitchenware, tableware)
바구니(Basketry)	도구, 부속품(Tools, Implements)
인형 제작(Doll making)	악기(Musical Instruments)
가죽공정(Leather work)	홈 데코(Home decor)
폴리머 클레이(Polymer clay work)	
유리공정(Glass work)	
금속공정(Metalwork)	
혼합 매체(Mixed media)	

- CODA는 공예품으로 취급하지 않는 항목을 따로 분류하였는데, 2000년대 인테리어용 그림(Decorative painting)이 취미공예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져 공예품으로 취급되었지만, 2010년대 들어서 실내 인테리어 용 그림(Home decor painting)은 공예품 항목에서 제외함<sup>15)</sup>

14) Craft Organization Development Association(CODA)(2011). The CODA Review 2011: Craft Artists, Income, and the U.S.Economy. p.2

15) Craft Organization Development Association(CODA)(2011). The CODA Review 2011: Craft Artists, Income, and the U.S.Economy. p.2

〈표 2-14〉 2010년대 공예품 제외 항목

항 목
음식, 목욕, 바디제품(Food, Bath, Body products)
스크랩북 등의 메모리공예, 고무스탬프(Scrapbooking/memory crafts, rubber stamping)
실내 인테리어 용 그림(Home decor painting)
순수미술 그림, 페인팅, 조각(Fine art drawing, painting, sculpture)

## 2) 공예산업 현황

-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문화적, 지역적 맥락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며, 재료의 사용, 기술, 생산양식, 지역적 특성 등이 광범위하여 체계적인 공예산업 분류 범위와 구성 체계를 파악하기 난해함
- 미국 공예산업의 특징은 실내인테리어 관련 기술,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일상에서 주로 쓰이는 인테리어용 공예, DIY 및 취미공예가 발달함 특히, 2000년 이후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 예술과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으로 공예를 소비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술 공예품, 공예 디자인 제품, 기능성 공예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sup>16)</sup>
- 미국에서는 ‘공예’를 ‘아트’, ‘디자인’의 용어 등과 복합 사용하여 공예, 아트, 디자인 간 균형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임. 1956년 처음 개관한 현대공예 박물관(Museum of Contemporary Crafts)은 2007년 예술디자인 박물관(Museum of Arts and Design, MAD)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공예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포괄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미국 공예산업의 주요 속성은 공예, 아트, 디자인의 중심에서 예술성, 기능성(Function), 수공성, 실용성이 상호 결합된 개념<sup>17)</sup>임

## 3) 공예산업 분류체계

- 미국 공예분야의 주요 연구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예지원기관인 CODA(The Craft Organization Development Association)의 자료에 근거함. 2000년 수행한 CODA 설문 조사는 공예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로 미국의 공예품 분류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함. 허나 2011년 보고서 The CODA Review 발행 이후, 공예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고, 명시적인 미국 공예산업 분류체계도 공식 발표된 바 없음
- 미국에서는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며 부수적인 소득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대략 5000만 명(2011년 기준)의 미국인은 공예품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음을 밝힘. 미국 공예

16)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5). 해외공예현황: 공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p.124

17)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p.20

위원회가 발표한 공예산업 관련 보고서<sup>18)</sup>에서는 2020년 기준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약 2억 7천만 원의 공예품 판매를 기록했음을 보여줌. 즉, 미국 경제에 미치는 공예산업의 효과가 큰 만큼 공예산업 관련 재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통계 관련 전문기관인 U.S. Census Bureau는 공예산업 분류에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데 있어 북미 산업 분류 체계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기준을 적용함<sup>19)</sup>. NAICS 2022를 기준으로 미국 공예산업과 관련한 주요 코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미국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이해를 위한 발췌자료로, 공예산업 분류 항목을 모두 반영하거나, 공식 발표된 공예분야 분류코드는 아님을 밝힘<sup>20)</sup>

〈표 2-15〉 미국 공예산업과 관련한 주요 코드

NAICS 2022 코드	NAICS 설명
459130	Sewing, Needlework, and Piece Goods Retailers
316990	leather and related products
327100	clay product and refractory manufacturing
327210	glass and glass product manufacturing
327900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 manufacturing
339900	other miscellaneous manufacturing
453220	gift, novelty, and souvenir stores
453900	miscellaneous store retailers
451130	sewing, needlework, and piece goods store

18) American Craft Council. (2020). The American Craft Council: 2020 Annual Report. p.5.

1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4).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p. 5.

20) CODA(2011년)가 제시한 기법의 분류에 근거하여 연계할 수 있는 코드와 NAICS가 정의한 "Artisans and craftspersons are classified in Sector 31-33, Manufacturing(장인과 공예인은 sector 31-33의 제조업으로 분류함)"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미국공예산업 연계 코드를 유추한 내용임



### 3. 이탈리아

#### 1) 공예의 정의와 특징

- 이탈리아 문화부(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MIBAC)가 의뢰하여 발간한 문화창조산업 보고서에서 공예는 'Material Culture Industrial(물질문화 산업)'에 속함. 영국과 마찬가지로 공예를 정의함에 있어, '공예'와 '디자인'의 용어를 복합 사용하여 'Design and Crafts (디자인과 공예)'로 표기함. 이탈리아에서 'Material Culture Industrial'이란 유형 및 무형의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sup>21)</sup>, 전통적인 수공업 제품(물질)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는 기법 측면의 결과물(비물질)을 모두 포괄함
- 이탈리아 전통공예의 경우, 2009년 공예분야를 위한 첫 번째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 of Artistic Craftmanship)에서 전통공예를 부르는 명칭으로 'Artistic Craftmanship' 용어를 소개함
- 예술적이고 전통적인 장인의 공예품은 영적이고 문화적인 메시지를 내포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전통성과 창의성을 내포한 예술품으로 간주되며, 전통공예품 주요 분류 항목에는 맞춤형, 가죽 및 가구류, 장식품, 사진 관련 활동, 목재, 일반 금속, 귀금속, 악기, 직조, 자수, 유리, 도자기, 석재, 종이, 음식 및 음료, 복원, 박제술, 시계를 포함<sup>22)</sup>

〈표 2-16〉 영국과 이탈리아의 전통공예 정의 및 분류 항목

공예 기관	전통공예 명칭	정의	전통공예 분류 항목
CCS(영국, 2012)	Heritage Craft	구조물, 운송수단, 휴대용 사물, 기타 제품 등을 제작, 수리, 복원, 유지하기 위해 손재주와 기술 및 전통재료,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는 실습관행	페인트, 목재 및 식물, 금속, 직물, 점토, 석고, 유리, 동물(가죽), 돌, 종이, 악기, 귀금속, 운송, 총, 보석, 장난감 및 오토마타
International Charter of Artistic Craftmanship (2009)	Artistic Craftmanship	예술성과 전통성을 가진 장인의 공예품은 정신적, 문화적 메시지를 내포하며, 동시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전통과 창의성 내포	맞춤복, 가죽 및 가구류, 장식품, 사진 관련 활동, 목재, 일반 금속, 귀금속, 악기 직조, 자수, 유리 도자기, 석재, 종이, 음식 및 음료, 복원, 박제술, 시계

21) Santagata, E. W., Translation, E., & Kerr, D. (2009). White paper on creativity Towards an Italian model of development

22) 전통공예 활성화 방안 : 문화창조산업의 사례 연구 (The Revitalization of Traditional Crafts: Case Studies from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2019, P. 22-23.

- 영국의 전통공예와 비교해보면, 전통공예의 분류 항목에 식문화 관련 공예품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지역주의와 향토주의를 바탕으로 지역별 다양한 전통음식이 발달해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 음식을 데코레이션하거나 식공간과 어울리는 카빙데코레이션 등이 공예 분류 항목의 하나로 구성되는 점을 보아 이탈리아의 문화를 반영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 공예산업 현황

- 이탈리아 공예산업은 지역별로 특성화 되어있고, 장인(Maestro)제도 기반의 공방형식 혹은 지역 클러스터를 통한 명품장인산업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금, 은세공 및 종교제품이 발달한 아시지와 피렌체, 도자공예가 발달한 피엔자 등 지역별로 독특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둠<sup>23)</sup>. <표 2-17>에 의하면 재료가 분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주요 공예 분야는 섬유, 가죽, 종이, 목재, 도자, 유리, 귀금속, 종교, 석재, 금속 등 10가지임. 대표적인 공예 품목으로는 목공예가 압도적임<sup>24)</sup>

〈표 2-17〉 공예 분야별 발달 도시

분야	세부목록	주요도시
섬유공예	태피스트리	베네치아
	레이스, 테이블 보	
	패션액세서리	
	벨벳 액세서리	
가죽공예	서류용 가방	피렌체
	동전지갑	
	탁상용시계	
	가죽함	
	패션액세서리	
종이공예	마블링종이공예	베네치아, 피렌체, 아시지
	가면	
	외장 장식용	
목공예	바이올린	구비오
	인테리어 소품	
도자공예	주방용기	피엔자
	화병	
	홍상	
	타일 및 기타도기	
	건축용 장식소재	

23)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5). 해외 공예 현황: 공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p. 799

24) 이원태. (2011). 공예문화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외국사례 조사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야	세부목록	주요도시
유리공예	Murrina	베네치아 뮤라노 <sup>25)</sup>
	주방기구 (식기, 컵)	
	시계	
	인테리어 소품	
	패션 액세서리	
금, 은 세공	금, 은 세공	아시지, 피렌체
종교제품	금, 은 세공 액세서리	
석공예	촛대, 재떨이	피사
금속공예	중세 갑옷	구비오, 피렌체
	미니어처, 각종 소품류	

출처: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해외 공예 현황 -공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를 참조하여 연구진 재구성.

### 3) 공예산업 분류체계

- 이탈리아는 장인제도 기반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전통 및 예술적 장인 분야(The sector of traditional and artistic workmanship)’에 대한 분류코드와 ‘장인들의 작업 활동’에 관한 분류코드는 유럽 경제 활동 분류 NACE<sup>26)</sup> rev.2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가능함
- 한국의 경우 공예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제조업과 유통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공예 분야의 전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제조업) 중심의 분류 결과임. 반면, 이탈리아의 장인관련 업종 분류 항목을 보면, 골동품 수리/복원업, 가죽 가공업 등 제조업 외에도 보존/복원/수리/가공업의 분야를 중요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시, 중분류 항목에 수리/복원업, 가공업 등의 항목을 일부 추가하여 분류체계 항목의 균등화를 이루도록 기준을 세워야 함
- 이탈리아 공예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된 것은 아님. <표2-18>은 NACE rev.2에 정의된 ‘전통 및 예술적 장인 분야(The sector of traditional and artistic workmanship)’의 관련 코드와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2014)」에서 유추한 공예산업의 분류체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예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코드를 유추한 것임

25) 이탈리아의 뮤라노 유리공예인증기관은 뮤라노 지역의 유리공예품 제작 과정에 따라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예품인증마크제를 시행함

26) NACE는 생산적 경제활동에 관한 유럽표준분류체계로, 유럽 통계 시스템 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체계임. UN에서 개발한 표준산업분류체계 ISIC 4를 참고하여 개발되어 ISIC 4와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이 일치하나, 유럽 회원국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더 상세하게 고안됨(Eurostat, 2008)

〈표 2-18〉 이탈리아 공예산업과 연계 가능한 주요코드

분야	NACE (유럽표준분류체계)	내용
섬유	14.1 14.2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except fur apparel Manufacture of articles of fur
	14.3 14.39	Manufacture of knitted and crocheted apparel Manufacture of other knitted and crocheted apparel
	74.10	Specialised design activities
가죽	15.1	Tanning and dressing of leather; manufacture of luggage, handbags, saddlery and harness; dressing and dyeing of fur
	95.24	Repair of furniture and home furnishings
목재	16.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manufacture of articles of straw and plaiting materials
	31.	Manufacture of furniture
	90.03	Artistic creation
금속	25.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equipment
	25.11	Manufacture of metal structures and parts of structures
	95.29	Repair of other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25.99	Manufacture of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not elsewhere classified
	32.13	Manufacture of imitation jewellery and related articles
귀금속	32.1	Manufacture of jewellery, bijouterie and related articles
악기 및 시계	32.20	Manufacture of musical instruments
	26.52	Manufacture of watches and clocks
텍스타일	13.2	Weaving of textiles
	13.3	Finishing of textiles
	13.9	Manufacture of other textiles
	13.92	Manufacture of made-up textile articles, except apparel
석·유리	23.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종이	17.1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board
	17.2	Manufacture of articles of paper and paperboard
	23.1	Manufacture of glass and glass products
	23.41	Manufacture of ceramic household and ornamental articles
음식 및 음료	10.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11.	Manufacture of beverages

출처: Confartigianato Liguria, 「Allegato Carta Internazionale Artigianato Artistic」<sup>27)</sup>.

27) Confartigianato Liguria, <https://www.confartigianatoliguria.it/carta-internazionale-dellartigianato-artistico>

## 4. 일본

### 1) 공예의 정의와 특징

- 일본 공예에 대한 정의는 「전통적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제정 1974년, 개정 2011년 6월)에 근거하는데, 전통적공예품의 법률상 정의를 살펴보면, ①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며, ②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③공예품의 특징이 되는 원재료나 전통적 기술·기법의 주요한 부분이 현재까지 계승되고, ④그 특색을 유지하면서 산업 환경에 적절하도록 개량되거나 시대의 수요에 맞게 제작되고, ⑤일정한 지역에서 그 원산지(공방)를 형성하는 공예품을 의미함
- 일본의 '전통적공예품산업'에서 알 수 있듯이, 공예산업을 정의할 때 '적'의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이어져 온 것' 중 '현재에도 이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에서의 가치가 중시된 것으로 개념이 변화·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sup>28)</sup>

### 2) 공예산업 현황

- 일본 공예산업에 관한 정책은 경제산업성 산하 전통공예품산업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통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일본의 전통공예품산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음.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전통적 공예품 240품목에 대하여 아래 <표 2-19>는 각 지역의 특성화된 공예품 품목을 근간으로 공예산업 업종을 파악한 것임

〈표 2-19〉 일본의 지역별 특성화된 공예품(전통공예아오야마스퀘어(伝統工芸青山スクエア) 기준)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홋카이도 아키타 가나가와	직물	오кина와	직물
			염색품
			도자기
	목공품·죽공품		칠기
			공예품
아오모리	칠기	시가	직물
			도자기

28) 황동열, 이하나. (2013). 한국과 일본의 전통공예산업 인증제도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6(1), 85-106.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불단·불구
이와테	칠기	오카야마	도자기
	목공품·죽공품		목공품·죽공품
	금공품		
미야기	칠기	오사카	염색품
	목공품·죽공품		목공품·죽공품
	문구		금공품
	인형·코케시		불단·불구
후쿠이	도자기	효고	도자기
	칠기		목공품·죽공품
	목공품·죽공품		금공품
	금공		문구
	종이		기타 공예품
야마가타	귀속 세공	돗토리	
	직물		직물
	금공품		종이
	불단·불구		석공품
	기타 공예품	시마네	
	직물		도자기
	도자기		
	칠기		종이
후쿠시마	목공품·죽공품		문구
			석공품
이바라키	직물	나라	종이
	도자기		문구
	석공품		
도치기, 군마	직물		석공품
	도자기		불단·불구
사이타마	직물	히로시마	문구
	기타 섬유품		기타 공예품
	목공품·죽공품		
	인형·코케시		
도쿄	직물	교토	직물
	염색품		염색품
	목공품·죽공품		기타 섬유품
	금공품		도자기
	인형·코케시		칠기
	기타 공예품		목공품·죽공품
			불단·불구
			석공품
인형·코케시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지바	금공품	와카야마	기타 공예품
	기타 공예품		칠기
		야마구치	목공품·죽공품
			도자기
			칠기
		문구	
	가가와	칠기	
기타 공예품			
니가타	직물	도쿠시마	직물
	칠기		
	목공품·죽공품		도자기
	금공품		
	불단·불구		
야마나시	귀속 세공	에히메	도자기
	기타 공예품		종이
나가노	직물	고치	금공품
	칠기		
	목공품·죽공품		종이
	금공품		
	불단·불구		
	종이		
기후	도자기	후쿠오카	직물
	칠기		도자기
	목공품·죽공품		불단·불구
	종이		인형·코케시
	기타 공예품		기타 공예품
시즈오카	목공품·죽공품	나가사키	도자기
	인형·코케시		기타 공예품
사가	도자기	오이타, 미야자키	목공품·죽공품
미에	기타 섬유품	구마모토	도자기
	도자기		금공품
	문구		기타 공예품
	공예용구·재료		
도야마	칠기	이시카와	직물
	목공품·죽공품		염색품
	금공품		기타 섬유품
	종이		도자기
	기타 공예품		칠기
	공예용구·재료		불단·불구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주요도시	공예산업 업종
			공예용구·재료
아이치	염색품	가고시마	직물
	도자기		
	목공품·죽공품		
	불단·불구		
	문구		
	석공품		도자기
	인형·코케시		불단·불구
	기타 공예품		

출처: 伝統工芸青山スクエア([https://kougeihin.jp/craft\\_pref/okinawa/](https://kougeihin.jp/craft_pref/okinawa/))

- 이처럼, 일본은 각 지역별 특화된 원사를 사용하는 직물공예가 발달했고, 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한 생활용품, 가구, 장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음
- 또한,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산업자원 활용 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신상품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음. 대표적인 지원정책 사례 중 하나는 ‘쿨 재팬(Cool Japan)전략’으로, 전통공예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상품, 애니메이션 등 일본 고유 콘텐츠 경쟁력 제고와 일본문화의 해외 진출이 주목적임
- 쿨 재팬 전략 중 하나로, 경제산업성은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통공예품을 지정하고, 기존의 공예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발견될 수 있도록 지원함. 2020년 8월 나고야 세쿠 카자리(Nagoya Sekku Kazari), 2022년 1월 기후 와가사(Gifu Wagasa, 일본 우산)에 이어, 2022년 11월 도쿄 샤미센(Tokyo Shamisen, 현악기), 도쿄 고토(Japanese harp, 일본 하프), 에도 효구(Edo Hyogu, 두루마리 장치)를 전통공예품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등 지역의 전통공예산업의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29)</sup>

29)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전통공예품산업실, 「伝統的工芸品産業をめぐり現状と今後の振興施策について」, 마지막 업데이트: 2022-11-16, [https://www.meti.go.jp/english/policy/mono\\_info\\_service/creative\\_industries/creative\\_industries.html](https://www.meti.go.jp/english/policy/mono_info_service/creative_industries/creative_industries.html)



### 3) 공예산업 분류체계

- 일본의 산업분류는 공예산업을 별도 분류하지 않고 제조업 중심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어, 공예품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분류체계는 아님
- 일본의 공예품 분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공예품용어집」에서 제시한 분류체계를 따르는데, 전통공예품은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전통공예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통공예품으로 분류함. 2022년 11월 기준, 「전통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伝統的工芸品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에 의해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분류 항목은 직물(織物), 염색품(染色品), 기타 섬유 제품(その他繊維製品), 도자기(陶磁器), 칠기(漆器), 목공품(木工品)·죽공품(竹工品), 금공품(金工品), 불단(仏壇)·불구(仏具), 종이(和紙), 문구(文具), 석공품(石工品), 귀석 세공(貴石細工), 인형·코케시(人形・こけし), 기타 공예품(その他工芸品), 공예용구·재료(工芸用具・材料) 등 15개로, 총 240가지 공예품 품목이 분류 항목으로 지정됨<sup>30)</sup>
- 기존 전통공예품 지정 품목은 14개 였으나, 석공품·귀석세공이 각각 독립되어 구분됨에 따라 2023년 현재 15개 항목으로 변경됨. <표 2-20>은 일본 전통공예품 지정 품목을 업종별로 정리한 것임

〈표 2-20〉 일본 전통공예품 지정 항목(업종별)

구분	종목(業種別)	건 수
전통공예품 지정 품목	직물(織物)	38
	염색품(染色品)	13
	기타 섬유품(その他繊維製品)	5
	도자기(陶磁器)	32
	칠기(漆器)	23
	목공품(木工品)·죽공품(竹工品)	33
	금공품(金工品)	16
	불단(仏壇)·불구(仏具)	17
	종이(和紙)	9
	문구(文具)	10
	석공품(石工品)	4
	귀석 세공(貴石細工)	2
	인형·코케시(人形・こけし)	10
	기타 공예품(その他工芸品)	25
	공예용구·재료(工芸用具・材料)	3
	합계	240

출처: 전통공예아오야마스퀘어(伝統工芸青山スクエア), (<https://kyokai.kougeihin.jp/traditional-crafts/>)

30) 전통공예 아오야마스퀘어(伝統工芸青山スクエア)(<https://kyokai.kougeihin.jp/traditional-crafts/>)

## 5. 시사점

### 1) 공예의 범위 및 구성

- 앞서 제시한 4개국의 공예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예와 디자인의 영역, 현대와 전통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특성과 정체성이 유기적이고 연대적이고 다양하게 융합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디지털과 크래프트의 기술적 융합(영국, 이탈리아), 공예, 디자인, 예술을 넘나드는 장르적 횡단(영국, 미국, 이탈리아), 전통과 현대의 시대적 혼합(이탈리아, 일본)이라는 복잡한 양상에서<sup>31)</sup>, 국내 공예산업은 어떤 특성을 기반으로 해당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분류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공예(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가마다 공예기관마다 주장이 다르며, 하나의 재료를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들을 서로 교차/융합하여 사용하거나, 타 산업과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융복합적인 양상을 보임

### 2) 공예, 디자인, 예술의 융복합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은 공예와 디자인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인 《공예+디자인》을 격월간 발행하고 있음.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공예와 디자인의 융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공예디자인’이 ‘디자인’과 구분되는 핵심 요소 및 경계는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며 동시대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고자 함
- 일부대학의 공예학과는 학과명에 ‘디자인’의 용어를 추가하여 명칭을 변경하거나, 학과목의 내용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기존 재료의 관점에 따라 공예학과를 편성한 것과 달리, 오늘날 공예는 디자인의 요소와 같은 무형적 특성까지 반영하기를 시도함
- 공예에 ‘디자인’의 용어를 추가, 복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예산업 내 ‘디자인’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의 지정이 필요함. 이를 근간으로 국내 공예산업분류를 마련함에 있어 그 구성논리 나 세부분류기준 등을 작성하는데 참고할 부분이 클 것임
- 또한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예에 그래픽과 인쇄분야를 편입하려는 경향을 보임. 영국은 2000년대 공예분야 대분류 항목에 그래픽 공예를 두었고, DCMS가 창조산업에 공예를 따로 구분한 이후 지금까지 TBR과 UCC는 북바인딩과 같은 제책/제본 관련 코드를 공예분야에 포함시키기 기를 요청함. 인쇄 후가공이 이루어지는 북바인딩 제작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술성을 보여주는 분야이고, 국내에서는 한지공예 북바인딩, 북바인딩 kit 등 취미공예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

3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디자인》 No.57, p. 72.의 수록된 내용과 공예평론가 최범의 자문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함

고 있음. 그러므로 제책/제본 관련 코드를 국내 공예산업 분류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3) 국내 공예품 및 공예재료 포지셔닝

- 이탈리아와 일본의 공예산업은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활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 재료나 공예품은 지역의 수요 창출을 넘어 해외 수출까지 연계되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형성할 수 있기에 지역 및 도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국내에서는 호미(경상북도 영주(공예품)), 화문석(인천광역시 강화도(공예 재료)), 한산모시(충청남도(공예 재료))가 대표적이고, 특히 호미의 경우, 홈가드닝(home gardening, indoor gardening 등)이 트렌드인 해외 국가에서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원예용품'으로 수출량이 급증함. 이러한 수출 효과 상품은 한국의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므로 국내 공예품/공예재료의 시장 포지셔닝 설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함
- 이런 과정에서 현지 공예전문가(협회, 공공기관 등)와 협력하여 상품 선정에서부터 홍보, 판매에까지의 전체 유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sup>32)</sup>

32)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5). 해외공예현황: 공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p. 886에서 공예품 수출전략을 일부 참고함



# 제3장

---

## 공예산업분류의 개선(안)

---

### 제1절. 공예산업분류 특징

1. 산업분류의 목적 및 특성
2. 공예산업분류의 특징
3. 공예산업분류의 한계점

### 제2절. 공예산업분류 개선

1. 기존 분류체계 유지 및 일부 변경
  2. 공예산업활동 중심의 분류 변경
  3. 공예산업분류 개선(안) 항목
  4. 공예산업분류 개선(안) 연계표
-



## 제3장. 공예산업분류의 개선(안)

### 제1절. 공예산업분류 특징

#### 1. 산업분류의 목적 및 특성

##### 1) 산업분류의 목적

-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KSIC)는 우리나라 사업체 또는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표준화된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유형화<sup>33)</sup> 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의해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 활동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도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sup>34)</sup>
- 산업분류는 국민계정(SNA)에서 정의한 것처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하고 있으며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이나 생산단위에 투입하는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해 분류 기준을 설정

##### 2) 산업조사의 목적에 따른 산업분류 방향: 진흥? vs. 지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조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체의 기본 현황(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의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산업의 진흥 또는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임
  - 이러한 산업의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정의를 광의적 또는 협의적으로 포괄할지, 산업조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산업을 유형화할지 가장 중요한 단계임
- 산업조사는 매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 현황 통계의 축적으로 시계열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1차 목적이 있고, 잠재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알기 위해 사업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차 목적이 있음

33)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서비스 조회([www.k-stat.go.kr/metasvc/main](http://www.k-stat.go.kr/metasvc/main))

34) 통계청. (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 p.3.

- 산업의 단계적 진흥을 위한 목적이라면, 핵심적인 산업분야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 분야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산업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조사와 그에 맞는 분류가 필요함
- 성장하는 시장의 중요성과 잠재적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인지하나 산업의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는 산업조사 수행시 산업활동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경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함. 그러므로 산업분류 구축시 핵심적인 산업분야는 물론 시장의 규모가 미미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산업까지 모두 포괄한 영역이 분류체계 내 포함되어야 함
- 물론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산업분류체계가 가장 최적의 방안이고, 실제 산업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대표적인 예가 법적 기준에 근거한 산업분류를 적용한 '관광산업조사'와 '공예산업실태조사'가 있음.
  - 관광산업조사는 관광산업 특수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진흥법」에 등록된 사업체 중심으로 정책지원 및 수립이 되는 경향이 있어, 「관광산업진흥법」상 '업종분류'와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관광산업분류'에 해당하는 2가지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 전자의 경우는 '사업체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모집단이 명확하여 정확한 정책지원 대상을 규정할 수 있고 어떠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지만, 관광산업의 포괄적인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반면 후자의 경우 '산업조사'로 산업의 규모, 부가가치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함
  - 한편 공예산업실태조사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을 근거로 3년 주기의 법정조사로 산업 규모 파악 및 경영활동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조사와 사업체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많은 산업의 특성상 분류체계와 모집단 구축이 어려워 실제 산업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실태조사 문항을 함께 조사할 경우 산업활동의 기본현황과 혼재되어 문항수가 많아지고 응답시간이 길어져 사업체 응답 거절율이 증가한다는 부분도 단점
- 즉 '산업조사'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기초통계를 산출하는 모집단을 확인하는 조사로 이 경우 각각의 사업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특수분류도 각 분류의 규모에 따라 포괄 여부를 결정함
- 반면 '사업체 실태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를 포함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정부 정책 평가 등을 다양하게 질문하는 조사로서 실제 정책활용을 위한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의 경우 이러한 조사가 많음
- 산업조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체 실태조사는 정책지원을 위한 것임. 즉 조사의 목적이 진흥이나 지원이냐에 따라 분류체계의 구성에 차이가 발생함



- 조사의 목적이 '산업조사'에 있다면 어느 정도 규모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해당 업종의 규모가 작을 경우 제외됨. 이 경우 분류체계는 상대적으로 간략해지고 단순해짐
- 반면 조사의 목적이 '사업체 실태조사'에 있다면, 지원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상공인들도 포괄하므로 상대적으로 분류체계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해당 분류체계를 활용해 향후 도출하고자 하는 경제통계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의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활용할 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함

### 3) 산업분류(특수분류) 연계 활용시 주의할 점

- 산업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최종산출물을 도출' 해야한다는 것이며 최종산출물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경제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의 영역에서 제외
- 산업분류 중 '특수분류'는 경제·사회의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산업에 해당하는 표준분류 항목을 발체 또는 재분류하여 만든 것<sup>35)</sup>으로 기존 산업분류가 가지는 기본적인 원칙을 모두 따르나 표준(산업)분류 준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
- 특정 산업에 대한 조사는 해당 분야 산업조사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해당 산업을 조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 산업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결코 타 산업과 중첩되지 않아야 함
- 통계청에서는 동일한 분야의 통계 중복 생산을 방지하고자 특정 분야의 산업 범위가 타 분야와 중첩되지 않도록 특수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연계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아래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분류는 제정될 때, 통계청에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특히 5번의 '분류의 포괄범위'의 명확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어 타 산업과의 중복성을 확인하고 있음
- 만약 타 산업과 상당히 중복되며 해당 산업만의 배타성을 가지지 못하면 특수분류로서의 한계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제정을 불허하는 경우가 다수임

35) 통계법 제22조 제2항

〈표 3-1〉 특수분류 제정시 검토 내용

연번	검토내용
1	책임기관이 명확하게 명시되었나?
2	분류사용목적(통계작성/행정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나?
3	분류사용자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개발 시 사용된 주요개념이 명확한가? ※ 분류레벨(대,중,소)이 결정되는데 사용된 개념, 산업분류의 경우 원재료, 생산과정, 산출물의 특성 고려
4	측정대상인 통계단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었나? / 통계단위들이 통계 집계시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나?
5	<b>분류의 포괄범위가 명확한가? 관련 국제분류가 있는 경우 포괄범위가 일치하는가?</b>
6	분류의 구조는 명확한가?
7	분류의 레벨수는 적절한가?
8	분류항목들의 명칭 및 정의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었는가? / 분류항목들이 상호배타적으로 설계되었는가?
9	부호구조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숫자, 영문, 기호 등 Code structure)
10	분류를 사용할 기관 및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식별되었는가? / 상기 기관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가?
11	예비/시범조사를 통하여 분류적용의 적절성이 검증되었는가?
12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가 작성 가능한가?
13	분류를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가?
14	개정주기 및 분류항목 변경/수정기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출처 : 양혜원, 전진영(2021),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 공예산업분류의 특징

- 공예산업분류의 대분류는 현재 도자, 유리, 석, 공예, 금속 등 공예소재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앞서 선행연구 및 해외공예분류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예 관련된 분류기준은 모두 공예소재 중심으로 되어 있음
  - 〈표 3-2〉를 보면, 대분류는 총 12개의 ‘공예소재’와 1개의 ‘공통’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분류기준이 다른 부분은 공예소재와 관계없이 모든 공예품에 적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분류는 공예소재별 공예품의 제조업, 유통업으로 산업활동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공예품의 수리업과 소재별 원재료 가공 또는 생산업을 포함. 그리고 ‘공통’ 분야는 종합도소매업, 공예전문서비스업, 전문협회 및 단체 그리고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소재별 특성과 상관없는 공예산업의 활동들을 제시함

〈표 3-2〉 2022년 공예산업 분류체계(대분류 및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0	도자	101	도자 제조업
		102	도자 유통업
20	유리	201	유리공예 제조업
		202	유리공예 유통업
21	석	211	석공예 제조업
		212	석공예 유통업
30	금속	301	금속공예 제조업
		302	금속공예 유통업
31	귀금속/보석	311	귀금속/보석 제조업
		312	귀금속/보석 유통업
		314	귀금속 제품 수리업
40	목	400	원재료 가공업
		401	목공예 제조업
		402	목공예 유통업
41	죽세/조경	400	원재료 가공업
		411	죽세/조경공예 제조업
		412	죽세/조경공예 유통업
50	종이/한지	500	닥나무 생산업
		501	종이/한지공예 제조업
		502	종이/한지공예 유통업
60	섬유	600	원재료 가공업
		601	섬유공예 제조업
		602	섬유공예 유통업
		604	섬유 관련 수리업
61	가죽	600	원재료 가공업
		611	가죽공예 제조업
		612	가죽공예 유통업
71	특수/복합 소재	700	원재료 가공업
		711	특수/복합소재 제조업
		712	특수/복합소재 유통업
70	기타	701	기타공예 제조업
		702	기타공예 유통업
80	공통	803	종합 도소매업
		805	전문기술서비스업
		806	협회 및 단체서비스업
		807	기타서비스업

출처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p.11.

### 3. 공예산업분류의 한계점

#### 1) 산업분류의 대분류(공예소재) 활용성

- 공예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인 공예소재분야를 살펴보면 기존의 12개 대분류는 도자, 유리, 석, 금속, 귀금속/보석, 목, 죽세/초경, 종이/한지, 섬유, 가죽, 특수/복합소재, 기타로 구분
  - 기존의 공예소재는 유사한 성격으로 일부 포함관계에 해당하는 분류가 존재하여 대분류간 대등한 관계가 아님. 금속분야 소재에 귀금속/보석의 소재가 포함되며, 목공예 소재에 국내 전통소재인 죽세/초경이 포함되고, 종이/한지 소재는 목공예의 산출물 중 하나로 분류함
  - 국내 공예 관련 교육학과 자료를 보면 도자와 금속(귀금속), 목공예 및 섬유(패션)를 제외한 소재의 학과는 개설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음을 볼 때, 공예소재의 구분도 더 큰 그룹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줌
  - 비광물 소재의 도자, 유리 분야, 광물 소재의 석, 금속, 귀금속, 목공 소재의 목, 죽세/초경, 종이/한지, 섬유와 가죽은 의류패션소재로 그룹화할 수 있음
- 또한 공예소재는 공예산업의 대표 '장르'로서 국내외 모든 공예분야 분류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의 근본적 목적으로 통계 산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도 필요
  -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설문문항에서 공예소재 파악이 가능하지만 산업분류의 대분류임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소재의 중복으로 별도 통계 산출을 하지 않고 있어 분류 기준으로서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음.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의 12개 장르 통계와 관광산업 특수분류의 핵심관광 8대 대표 업종으로 통계가 산출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
  - 대분류의 기능성과 활용성이 크지 않다면, '공예소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통계를 파악하되, 분류체계의 기준으로서 재검토해야 함

#### 2) 분류체계의 '일관성(consistency)' 저하 vs. 유효한(valid) 통계

- 기존의 공예산업분류 내 산업활동은 제조업, 유통업과 일부 수리업, 원재료 가공 및 생산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통 분야에서 종합도소매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및 협회 및 단체가 제시되고 있으며 산업활동이 소재마다 동일하지 않아 분류체계로서 일관성이 저하됨
  - 제조업, 유통업, 수리업, 원재료 생산 및 가공업을 모든 소재마다 매칭하여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를 구축하면 분류체계로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하지만 공예소재별 특성에 해당하는 산업활동 과정이 달라 해당하지 않는 산업분류가 존재할 수 있고 산업규모가 적은 경우 별도의 분류를 구축하기 어려움
  - 소재 간 유사한 산업활동과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중복인 경우 이러한 산업의 중복처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관성 있게 분류체계를 구축할 경우 통계 중복 산출될 가능성 있음

- 분류체계의 일관성은 실태조사 결과와 매칭하여 유효한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고려 대상

### 3)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통계 영역

-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통계는 주요 업종(제조/생산, 유통/판매)과 작업 방식(수공예, 일반공예), 영역(협업적, 광의적), 공예품 소재별로 산출되고 있음
  - 산업실태조사에서 활용하는 산업분류는 통계산출을 목적으로 사업체 및 기업체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는 기준이 되므로 통계산출의 기준으로 반드시 활용되어야 함
  - <표 3-3>을 보면,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산업규모에 대한 주요 통계는 산업분류의 대분류(소재)와 중분류(산업활동)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통’ 영역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 도소매와 전문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분화하여 소재 중심의 결과가 아닌 업종 중심의 결과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광의적 공예 영역은 공예품 제작을 기획하거나 다량 유통·판매하고 소비하는 부분까지 포괄하는데, 이는 ‘공통’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분류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함

〈표 3-3〉 2021년 기준 공예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추정결과

구 분		사업체 수(개)	총 매출액(백만원)	종사자 수(명)
전 체		5,000	5,242,682	64,219
주요 업종	제조/생산	1,383	2,484,067	25,538
	유통/판매	2,439	2,758,615	38,681
작업방식	수공예	1,178	1,192,189	13,238
	일반공예	1,279	4,050,493	50,981
영역	협업적 영역	3,721	3,919,590	51,560
	광의적 영역	741	1,323,092	12,659
공예품 소재 (종목)	도자	532	458,431	5,530
	유리	46	45,853	661
	석	57	27,854	609
	금속	316	403,521	4,939
	귀금속/보석	1,183	1,295,590	14,282
	목	950	1,113,679	12,068
	죽세/조경/칠	38	53,264	865
	종이/한지	291	85,313	1,270
	섬유	1,395	900,195	14,326

구 분	사업체 수(개)	총 매출액(백만원)	종사자 수(명)
가죽	203	234,854	3,458
특수/합성	161	31,944	400
기타	114	119,797	1,423
공 통	-	472,388	4,387

출처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구진 재구성

주1) : 사업체 수는 표본조사의 응답 결과로 주요 업종, 영역, 소재 간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통계임

주2) : 공예품 소재의 '공통' 영역은 사업체수가 별도 구분없이 조사결과에서 매출액 및 종사자수 산출

#### 4) 공예산업분류와 예술산업분류의 방향성 동반 고려

- 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생산단위(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규모, 부가가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핵심문화예술산업<sup>36)</sup>의 한 문화영역으로 시각예술 및 공예영역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 공예영역(창작업, 협회 및 단체, 기획 및 제작업, 시설 및 공간 운영업, 제품 유통 및 판매업)은 5개의 산업활동의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구분되었으며, 시각예술과 공예의 중복이 많이 발생한다는 영역에서 포괄하여 구축되었음
- 2022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2021년 분류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2022 예술산업 현황 시범조사」를 시행함
  - 기존 공예영역에 IT/SW/솔루션제공 영역이 포함되어 기존 '산업' 규모보다 더 확장되었으며, 문화예술 공통영역에 포함되는 직접 관련, 전/후방 지원분야로 확장되어 연계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이 많이 추가됨
  - 모집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술산업 영역인지 알 수 없는 사업체'는 제외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였고, 예술산업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 없이 조사가 수행되어 과대추정된 통계 결과를 산출함
- 앞선 두 개의 선행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올해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공예'산업 영역의 분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지 연관된 상위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함
  - <표 3-4>는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의 미술분야 이며, 공예분야 분류체계는 미술과 중복되는 영역도 있지만, 공예산업의 고유특성과 지속적이 시계열을 축적하기 위한 기존의 산업분류를 고려하여 별도 분리하기로 함

36) 핵심문화예술산업(Core Arts & Cultural Industry)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문학, 시청각 및 상호작용미디어, 그리고 문화예술 공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정신적·심미적·창조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의 창작·실연, 기획·제작·유통, 소비·향유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표 3-4〉 예술산업분류 개선(안) : 대분류(미술산업)

중분류	소분류	내용
미술 창작업	미술 창작업	회화, 조각, 판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행위미술, 응용미술, 사진 등의 창작 활동에 종사예술단체 또는 사업체
미술 전시·기획업	미술 전시업	미술 작품의 전시 및 관련 행사를 기획, 조직, 운영, 대행하는 산업활동 (협회·단체가 기획하는 전시·아트페어 등의 경우 해당 매출 해당)
	미술 상품·도록 기획·제작업	미술작품 또는 작가를 소개하는 도록 또는 미술작품을 소재로 하여 머천다이징 상품을 기획·개발하는 산업활동 *예: 아트상품 개발, 작가도록 작업 디자인 회사 등
	미술 설치·운송업	미술 작품의 운송 및 작품 설치 관련 업무 수행
	미술 매니지먼트업	미술작가들의 계약협상, 스케줄 관리, 홍보 등 수행 *예: 강연 및 행사관리 등
	기타 미술 관련 기획·제작업	미술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제품·서비스 생산 *예: 온라인 예술뉴스 정기구독 서비스, NFT, 작가작품 사본 판매, 온라인3D전시관 제작, 미술 관련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술시설 운영업	미술관 운영업	일반 대중에게 미술품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전문 미술관 시설을 운영. 작품은 소장하나 작품판매를 하지 않음
	전시공간 대관업	전시 공간 대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미술품 진열 및 관람을 직접 기획하지 않고 단순히 공간 대관만을 운영
미술 유통업	화랑업	화랑 등 미술품을 판매하는 산업활동
	미술 경매업	경매를 통해 미술품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체 *예: 서울옥션, 플리옥션 등
	미술 대여업	미술품의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 *예: 그림구독 서비스(핀즈, 오픈갤러리 등)
	전시·행사 입장권 예약·판매업	전시 및 관련 행사의 입장권 예약 및 판매를 매개·대행·지원
	미술 상품·도록 유통업	미술 도록 또는 머천다이징 상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체(온라인 포함)
	기타 미술 유통지원 서비스업	기타 미술 유통 지원 서비스 제공(자문업 포함)
미술 서비스업	미술 감정업	미술품의 진위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사업체
	미술인 매니지먼트업	미술작가들의 스케줄 관리, 홍보, 계약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체
미술 교육업	미술 교육업	회화, 조소, 사진, 공예 등 미술 및 사진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체(입시 및 취미 교육 포함.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은 제외하며 사설학원만 포함)
미술용품 제작·유통·대여업	화방업	미술 창작에 필요한 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체
	액자·표구 제작·판매업	미술 작품의 액자를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체
	기타 미술용품 판매·대여업	그 외 미술 창작, 전시 등을 위해 활용되는 각종 장비 및 용품을 판매·대여하는 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공예 소재별 분류를 연계하더라도 별도 소재 중심의 모집단 구축 및 표본 추출은 어려우며, 현재 기준처럼 설문을 통해 공예품을 구성하는 주요 소재 1종에 대해서만 통계 산출이 가능함. 또한 공예산업의 공통영역과 '예술산업특수분류' 내 공통지원 및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앞선 두 개의 선행연구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올해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공예산업' 영역의 분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연관된 상위 정책부서와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함



## 제2절. 공예산업분류 개선

### 1. 기존 분류체계 유지 및 일부 변경

- 앞서 문화체육관광분야 타산업분류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저작권, 콘텐츠, 문화예술 등 산업분류의 대분류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 위주임. 저작권산업의 핵심영역은 9개, 콘텐츠산업은 12개, 문체부에서 자체분류하고 있는 문화예술산업분류(2020)는 4개 분야(문학 및 출판, 공연, 시각예술, 문화기반시설)로 장르로 구성됨. 문화예술산업분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영역을 구성하며 시각예술 내 공예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국내 기준과 앞서 2장에서 제시한 해외 사례를 볼 때 기존의 공예산업분류를 공예 소재 특성을 대분류로 구성하는 변경1안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판단함
  - 단 기존의 12개의 공예 소재가 일관성 있게 배열하기 위해 이질적인 공통 산업활동 분야를 대분류로 하되 5개(비금속, 광물, 목재, 패션·옷감, 그 외)로 구분하여 소재 특성을 일관성 있게 그룹핑하고 세부 소재는 산업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거나 통합함
  - 기존의 공예산업 분류체계는 공예산업의 대표 특징인 공예 소재로 대분류를 구성하고 소재별 특성내에서 중분류의 산업활동의 특성이 이어짐. 중분류의 산업활동도 공예품 제조업과 공예품 유통업이 중심이 되었으며, 일부 분류는 원재료 가공업과 공예품 수리업이 추가됨
- 하지만, 다른 분야 산업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표본설계와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실제 활용성이 높은 산업의 가치사슬 활동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예산업도 공예산업 활동(창작 및 기획, 제조, 유통, 소비, 교육 등)별 분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종합적 상황을 볼 때 공예산업분류는 모든 공예 소재별 산업활동을 일관성 있게 공통으로 제시해야 함.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업, 공예품의 기획·제작업(협회 및 단체), 공예품의 유통·판매업, 공통 영역으로 공예 전문 유통업과 공예 시설 운영·관리업, 교육·체험업, 협회 및 단체, 전시 및 운송 등으로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함

〈표 3-5〉 (1안) 공예산업의 소재별 산업활동 기준

기본 분류				변경(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0	도자	101	도자 제조업	비금속	도자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102	도자 유통업		유리	공예품 기획·제작업	
20	유리	201	유리공예 제조업	금속 및 광물	석	공예품 유통·판매업	
		202	유리공예 유통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21	석	211	석공예 제조업			공예품 기획·제작업	
		212	석공예 유통업		금속	공예품 유통·판매업	
30	금속	301	금속공예 제조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302	금속공예 유통업	귀금속/보석	귀금속/보석	공예품 기획·제작업	
31	귀금속/보석	311	귀금속/보석 제조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312	귀금속/보석 유통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314	귀금속 제품 수리업	목재	목	공예품 기획·제작업	
40	목	400	원재료 가공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401	목공예 제조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402	목공예 유통업		죽세/초경	공예품 기획·제작업	
41	죽세/초경	400	원재료 가공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411	죽세/초경공예 제조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412	죽세/초경공예 유통업	종이/한지	종이/한지	공예품 기획·제작업	
50	종이/한지	500	닥나무 생산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501	종이/한지공예 제조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502	종이/한지공예 유통업	패션 옷감	섬유	공예품 기획·제작업	
60	섬유	600	원재료 가공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601	섬유공예 제조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602	섬유공예 유통업		가죽	공예품 기획·제작업	
		604	섬유 관련 수리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61	가죽	600	원재료 가공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611	가죽공예 제조업	그외	특수/복합	공예품 기획·제작업	
		612	가죽공예 유통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71	특수/복합소재	700	원재료 가공업			공예 원재료 생산·가공업	
		711	특수/복합소재 제조업	기타	기타	공예품 기획·제작업	
		712	특수/복합소재 유통업			공예품 유통·판매업	
70	기타	701	기타공예 제조업			종합 도소매업 (온라인 포함)	
		702	기타공예 유통업	공통 영역		공예 시설 운영·관리업	
80	공통	803	종합 도소매업			교육 및 체험업	
		805	전문기술서비스업			제작도구 및 시설 유통·판매업	
						협회 및 단체서비스업	
		806	협회 및 단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수리업	
						기획/판매/매개업	
		807	기타서비스업			출판	
						전시 및 운송업	
						기타(보험, 금융 등)	

## 1) 1안의 특징

- 연속적인 조사분류, 모집단 구축, 통계 산출을 통한 원자료, 통계의 시계열 유지가 장점
  - 전통적인 공예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분류체계 구성 및 조사 수행
  - 시계열 통계 생산으로 안정적으로 산업의 동향 변화 파악 가능(모집단, 통계값 변동 최소화)
- 기 구축된 공예산업 모집단 활용 및 연계 가능
  - 공예산업 분류를 활용한 모집단 정비시 경험적 노하우가 담긴 사업체 판별
- 시범조사 등 개정된 분류 검증 단계 없이 본조사 수행 가능(예산 절감)

## 2) 1안의 한계점

- 소재 중심의 산업분류는 모집단 구축 및 정비의 정밀화가 어려움
  -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수행마다 모집단 정비를 위해 대규모 발견조사를 수행할 경우<sup>37)</sup>, 한정된 예산으로 정밀한 발견조사가 어려움. 본 조사와 모집단 발견조사의 이중 조사로 인한 조사부담이 큼
  - 단일 사업체 모집단으로는 영세한 공예사업체가 제외될 가능성이 큼. 전국사업체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게 될 경우 연계된 산업분류에서만 공예분야 사업체를 조사하게 되므로, 현실적인 공예 사업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오류가 발생. 2022년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현장에서 공예산업 관련 사업체를 확보하거나, 2차 외부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모집단 리스트를 확보해야 함
- 공예 소재별 산업 규모의 일관성이 부족, 활용성 저하
  - 소재마다 공예산업의 가치사슬이 달리 적용되어 소재별 분류 및 산업규모에 대한 변동이 큼
  - 소재별 통계 생산이 많지 않아, 대분류 기준의 통계 활용성이 저하됨
-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과 별도의 분류체계를 유지하여 통계 비교 불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3년 예술산업특수분류 개선 연구에서 제한한 산업활동의 가치사슬에 따른 분류 구축, 통계 생산, 최종 산출물 및 서비스에 대한 소분류 구성에 대한 기준이 공예산업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예술산업분류 내 공예산업을 통합하여 결과를 인용하기 쉽지 않음

37) 2022년 실태조사의 경우 약 4만 개 목표 모집단을 정비하여 약 7천 개 조사 모집단을 확보

## 2. 공예산업활동 중심의 분류 변경

- 공예산업의 특성 중 타산업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소재 중심이며, 특히 ‘원소재 생산 및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임
  - 산업활동의 가치사슬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변경하더라도 공예품 창작·제작업, 공예품 유통업, 공예 교육·체험업, 공예 서비스업은 타산업 통계와 비교가 가능함
  - 공예품 제작을 위한 원소재(도자, 전통소재, 섬유 등) 생산 및 가공은 공예산업의 특성으로 일부 포함해야 하며 공예품 수리업과 함께 창작·제작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사회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분류체계 구축
  - 산업간 융복합, 공예품 소재의 제한이 없어지거나 신소재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소재의 대분류 구분없이 분류체계를 구축하면 영세한 사업체 통계가 중복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산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됨
  - 공예품 제작업을 세분류 수준에서 소재로 구분하여, 모집단 구축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산업조사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표본설계와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분류 기준을 유사하게 구축하려는 성향이 있음
  - 공예산업의 가치사슬 활동(원소재 생산, 창제작, 유통, 시설, 서비스)별 분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3-6〉 (2안) 공예산업활동(가치사슬) 중심의 분류 기준

기존 분류				변경(안)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10	도자	101	도자 제조업	공예품 창작·제작업	공예 창작업		
		102	도자 유통업				
20	유리	201	유리공예 제조업		공예품 제작업 (소재구분)		
		202	유리공예 유통업		(원재료 생산·가공업)		
21	석	211	석공예 제조업				
		212	석공예 유통업				
30	금속	301	금속공예 제조업	공예 유통업			
		302	금속공예 유통업				
31	귀금속/보석	311	귀금속/보석 제조업				
		312	귀금속/보석 유통업		(공예품 수리업)		
		314	귀금속 제품 수리업				
40	목	400	원재료 가공업				
		401	목공예 제조업		공예 작품 유통업		
		402	목공예 유통업				
41	죽세/초경	400	원재료 가공업				
		411	죽세/초경공예 제조업				
		412	죽세/초경공예 유통업	공예 생활용품 유통업			
50	종이/한지	500	닥나무 생산업	공예 교육·체험업			
		501	종이/한지공예 제조업				
		502	종이/한지공예 유통업				
60	섬유	600	원재료 가공업				
		601	섬유공예 제조업		공예 교육·체험업 (공방 포함)		
		602	섬유공예 유통업				
		604	섬유 관련 수리업				
61	가죽	600	원재료 가공업		공예 서비스업		
		611	가죽공예 제조업				
		612	가죽공예 유통업			공예산업 지원 서비스업	
71	특수/ 복합소재	700	원재료 가공업				
		711	특수/복합소재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전문가)			
		712	특수/복합소재 유통업				
70	기타	701	기타공예 제조업				
		702	기타공예 유통업	공예품 전시시설업			
80	공통	803	종합 도소매업				
		805	전문기술서비스업				
		806	협회 및 단체서비스업	(기타 공예 서비스)			
		807	기타서비스업				

출처: 「2022 공예산업실태조사」를 참조하여 연구진 재구성

## 1) 2안의 특징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공예산업분류를 일부 추출할 수 있어 분류체계 관리 및 통계 간 비교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산업활동(제조, 유통, 서비스 등)을 분류기준과 유사하게 구축하면 2024년 KSIC 11차 개정 이후 공예산업 분류체계 연계표 변경이 용이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과 유사한 구축 방법으로 일관성 통계 산출, 타통계 비교 용이
- 최신 공예 동향을 반영한 공예산업활동의 추세 반영
  - 제조업 및 유통업 외 교육·체험업과 서비스업과 같은 추가 영역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조사할 수 있음
- 산업활동에 따른 모집단 구축 및 정비 부담 경감
  - 모집단 정비를 위해 발견조사시, 공예 소재와 관련된 문항 감소시 통합적인 공예산업 여부 판별에 집중할 수 있음. 조사 부담이 다소 경감됨
  - 기존 사업체 모집단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세한 공예사업체가 제외될 가능성이 큼. 전국사업체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게 될 경우 연계된 분류체계가 없을 경우 현실적인 공예 사업체 규모를 파악하는데 오류 발생. 2022년 실태조사와 같이 조사현장에서 공예산업 관련 사업체를 확보하거나, 2차 외부자료를 활용한 다수의 모집단 리스트를 확보해야 함
- 공예산업의 활동별 통계 산출이 가능하여 대분류 통계 활용성 강화
-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통계활용이 용이함
  - 산업활동의 가치사슬에 따른 분류를 구축할 경우 예술산업분류 내 공예산업을 포함하여 결과를 인용하기 용이함. 단, 기존의 미술산업과 중복되거나(시설업), 공예산업 지원서비스업은 공예의 특성을 반영한 협회 및 단체 대상의 조사이므로, 결과 인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관된 정책부서의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분류 구축하고 통계 작성이나 타분야 통계와 비교가 용이함

## 2) 2안의 한계점

- 이전과 다른 산업분류, 모집단 구축 방법으로 통계의 시계열 불가
  - 모집단 및 통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계열 통계 단절의 가능성 있음
- 본조사 수행시 변경된 분류체계를 검증할 파일럿 시범조사 수행 필요

〈표 3-7〉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 비교

구분	1안(공예소재 구분)	2안(공예 산업활동)
모집단 구축	- 소재별 모집단 구축 불가	- 대분류별 모집단 구축 가능
파일럿 시범조사 필요	- 본조사 시행 (개정된 분류 검증 불필요, 예산 절감)	- 시범조사 시행 (변경된 분류체계 검증, 예산 확보 필요)
통계 산출 규모	- 공예 소재별 산업 규모 상이	- 공예산업 활동별 통계 산출
예술산업 특수분류 비교	- 예술산업 특수분류와 상이한 분류체계	- 예술산업 특수분류와 동일한 분류체계
최신 동향	- 시설, 서비스업, 교육업 반영 어려움	- 최신 공예산업 추세 반영

### 3. 공예산업분류 개선(안) 항목

#### 31 공예 창작·제작업

##### 311 공예품 창작업

##### 3111 공예 창작업

공예품을 창작하는 자영업자

##### 3112 공예 디자인업

공예품을 디자인하는 산업활동

##### 312 공예품 제작업

수공성, 핸드메이드의 특성을 살려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한 사물을 설계·창작·제작·개선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제작하는 산업활동

##### 3121 도자 공예품 제작업

흙을 소재로 도자 공예품 제작

##### 3122 유리·석 공예품 제작업

유리 또는 석재로 공예품 제작

##### 3123 금속(귀금속) 공예품 제작업

금속 또는 귀금속(보석 포함)으로 공예품 제작

##### 3124 목재 공예품 제작업

나무, 대나무, 조물, 종이, 한지 등 소재로 공예품 제작

**3125 패션 및 옷감 공예품 제작업**

섬유, 가죽 등 소재로 패션용 및 옷감으로 공예품 제작

**3129 기타 공예품 제작업**

그 외 기타 소재로 공예품 제작

**32 공예 유통업**

**321 공예 작품 유통업**

공예 작품(예술품이나 기념품)을 유통하는 산업활동

**3211 공예 예술품 유통업**

**3212 공예 기념품 유통업**

**322 공예 생활용품 유통업**

공예 생활용품을 유통(온라인 포함)하는 산업활동

**33 공예 교육·체험업**

공예 관련 교육, 체험을 목적으로 공방을 운영하며 일부 창제작 활동과 유통을 겸하는 경우 있음

**34 공예 서비스업**

**341 공예산업 지원 서비스업**

공예 관련 전문가, 협회 및 단체로 관련 행사를 기획, 조직, 운영하거나 지역 공예 공급자(창제작, 유통)와 소비자(교육체험, 향유)를 매개하는 활동  
(협회·단체가 기획하는 전시·아트페어 등의 경우 해당 매출은 여기에 해당)

**3411 공예 전문가 단체**

**3412 공예 협회 및 단체**

**342 공예품 전시시설업**



## 4. 공예산업분류 개선(안) 연계표

공예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3111	공예 창작업	90132*	비공예예술가
3112	공예 디자인업	7320*	전문 디자인업
3121	도자 공예품 제작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3122	유리·석 공예품 제작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3123	금속(귀금속) 공예품 제작업	25999*	그 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2091*	금속가구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95393*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3124	목재 공예품 제작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125	패션 및 옷감 공예품 제작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공예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129	기타 공예품 제작업	33932*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3211	공예 예술품 유통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3212	공예 기념품 유통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3220	공예 생활용품 유통업	46433*	생활용 유라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46431*	생활용 가구 도매업
		47520*	가구소매업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330	공예 교육·체험업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29*	기타 예술학원
		85640*	사회교육시설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3411	공예 전문가 단체	94120*	전문가단체
3412	공예 협회 및 단체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3420	공예품 전시시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 제4장

---

## 조사표 개선(안)

---

### 제1절. 조사표 분석

1. 조사표 분석 목적
2.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3. 타 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4. 조사항목 개선 필요사항

### 제2절. 조사표 개선

1. 조사항목 개선 방향
2. 조사항목 변경(안)

### 제3절. 소결

---



## 제4장. 조사표 개선(안)

### 제1절. 조사표 분석

#### 1. 조사표 분석 목적

-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목적은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마련의 근거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있음. 이에, 공예산업의 주요 현황과 공예산업 종사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공예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필수적인 기초통계임
-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現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선정된 대표성 있는 표본선정이 필요하며, 조사목적에 충실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측정도구로 타당성 있는 조사표가 필요함
- 제4장에서는 2022년에 실시된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현재의 지표가 조사목적과 사용목적에 맞는지 검토함. 나아가 타당성이 입증된 유사 설문지에서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기존 조사표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표 분석 시 조사항목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사업체 응답 부담 경감, 조사 효율성 제고, 비표본 오차 최소화를 기준으로 조사항목을 개선(안) 도출하였음
- 4장 1절에서는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며, 4장 2절에서는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조사문항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문항(문구)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 2.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먼저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1)사업체명, 2)대표자명, 3)대표자 성별, 4)대표자 연령대, 5)사업체 설립년도, 6)사업체 형태, 7)사업체 구조, 8)대표자 경영형태, 9)사업체 주소, 10)사업체 전화번호, 11)팩스번호 등 '사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로 구성되었음
- 〈PartA〉 '사업체 기본현황'으로 총 12개 항목임. 주요항목으로는 ①주요사업(업종), ②공방운영,

- ③대표제품/소재/가격, ④종사자 현황, ⑤전공 및 전문교육 등으로 이루어졌음
- ①주요사업(업종)에 따라 제조 및 생산에 대한 <PartB>와 유통 및 판매에 대한 <PartC>로 나뉘는데 제조 및 유통을 겸업하는 경우 <PartB>와 <PartC>를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공방'을 운영하는 경우 공예품의 제작 및 생산만을 하면 <PartB>만 작성하고, 공예품을 직접 제작 및 생산하고 공방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에도 해당되므로 <PartB>와 <PartC>를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음
  - <PartB>는 '제조 및 생산 현황'으로 25개 항목임.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①기획-제조/생산-유통 단계별 어려움/중요도, ②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③제품 신규출시 및 개선, ④사업체 제품의 강점, ⑤제품 유통 경로, ⑥제품 주된 판매처, ⑦유통/판매, 판로개척 애로사항, ⑧공예 관련 교육사업, ⑨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구성되었음
  - <PartC>는 '유통 및 판매 현황'으로 16개 항목임.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①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②제품 납품/판매 경로, ③제작-유통 제품 주 판매처, ④유통 단계별 어려움/중요도, ⑤홍보 및 마케팅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 4-1〉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조사 항목

구 분	조사 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사업체 기본 정보 (11개 문항)	①사업체 정보 ②대표자 정보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대 ⑤사업체 설립년도 ⑥사업체 형태 ⑦사업체 구조 ⑧대표자 경영형태 ⑨사업체 주소 ⑩사업체 전화번호 ⑪사업체 팩스번호
<PartA> 사업체 기본현황 (12개 문항)	①주요사업(업종) ②공방운영 ③대표제품/소재/가격 ④종사자 현황 ⑤전공 및 전문교육	①주요사업(업종) ②겸업의 경우 매출액이 더 많은 업종 ③공방 운영 여부 ④공방 운영시 공예품 사업 활동 비율 ⑤주요사업 관련 업종 코드 ⑥주로 취급하는 공예품 또는 공예 관련 제품의 형태 ⑦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 현황 ⑧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⑨대표적인 공예품 ⑩대표 공예품의 주된 소재 ⑪대표 공예품의 주된 용도 ⑫대표 공예품의 판매가격
<PartB> 제조 및 생산 현황 (25개 문항)	①기획-제조/생산-유통 단계별 어려움/중요도 ②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③제품 신규출시 및 개선 ④사업체 제품의 강점 ⑤제품 유통 경로 ⑥제품 주된 판매처 ⑦유통/판매, 판로개척 애로사항	①어려움_사업기획 ②어려움_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③어려움_제품생산 ④어려움_상품 포장, 홍보 및 마케팅 ⑤어려움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⑥중요도_사업기획 ⑦중요도_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⑧중요도_제품생산 ⑨중요도_상품 포장, 홍보 및 마케팅 ⑩중요도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⑪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⑫제품 신규출시 및 디자인/기능 개선 경험 ⑬제품 신규출시 및 디자인/기능 개선 이유 ⑭제품의 강점 ⑮제품의 유통/판매 경로 ⑯제품 유통/판매 납품 시 애로사항 ⑰제품 주된 판매처 ⑱판로 개척 시 애로사항 ⑲공예 관련 교육 운영 현황 ⑳교육 주된 참가대상 ㉑교육 시 주 교육장 ㉒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㉓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㉔재교육 애

구 분	조사 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⑧공예 관련 교육사업 ⑨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로사항 ⑤희망 프로그램
〈PartC〉 유통 및 판매 현황 (16개 문항)	①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②제품 납품/판매 경로 ③제작-유통 제품 주 판매처 ④유통 단계별 어려움/중요도 ⑤홍보 및 마케팅 현황	①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보유 여부 ②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주된 유형 ③제조/생산업체 납품받는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 ④유통/판매업체 납품받는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경로 ⑤제조/생산업체 납품 애로사항 ⑥ 제작유통 제품 주된 판매처 ⑦어려움_유통망 및 시장조사 ⑧어려움_제품 확보 ⑨어려움_포장 및 패키징 ⑩어려움_홍보 및 마케팅 ⑪어려움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⑫중요도_유통망 및 시장조사 ⑬중요도_제품 확보 ⑭중요도_포장 및 패키징 ⑮중요도_홍보 및 마케팅 ⑯중요도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⑰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경험 ⑱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경로
〈PartD〉 수출/수입 현황 (7개 문항)	①수출입 현황 ②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③해외 판로개척/확대 의향	①수출 및 수입 경험 ②과거 또는 현재 수출 시도 경험 ③2021년 공예품 수출금액 ④2021년 공예품 수출금액 비중 ⑤공예품 수출 애로사항 ⑥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험 ⑦온라인 해외 유통 및 판매 사이트 등록 경험 ⑧해외 판로 확대 의향
〈PartE〉 채용 및 대외 활동 현황 (9개 문항)	①신규직원 채용경험 ②가장 많이 채용한 분야, ③2022 신규채용인원 또는 향후 신규채용 현황 ④직/간접 정보습득 ⑤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현황	①신규직원 채용경험 ②가장 많이 채용한 분야 ③2022 신규채용인원 또는 향후 신규채용 현황 ④신규채용 및 인력 수급시 구인 경로 ⑤사업정보 직/간접 정보습득 여부 ⑥사업정보 직/간접 정보습득경로 ⑦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여부 ⑧가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입목적 ⑨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도움여부
〈PartF〉 재무현황 (14개 문항)	①매출액 및 비중 ②지출 및 운영비 ③자금조달방법 및 비중 ④코로나19 이전/이후 자금사정 변화 ⑤전년 대비 사업실적 변화 ⑥향후 사업전망 및 예상 매출액	①총 매출액 ②순수 공예 관련 매출액 ③순수 공예 관련 매출액 비중 ④제조/생산 업체_분야별 매출액 비중 ⑤유통/판매 업체_분야별 매출액 비중 ⑥한 달 평균 지출비용 ⑦운영비 항목별 비중 ⑧자금조달 방법 및 비중 ⑨자금사정 코로나19 이전 변화 ⑩자금사정 코로나19 이후 변화 ⑪2022년 사업 실적 2021년 대비 변화 ⑫향후 사업전망 ⑬향후 전망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⑭2022년 예상 매출액
〈PartG〉 기술 보유 현황 (3문항)	①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①지적재산권 취득/등록 현황 ②인증 및 특허 취득/등록하지 않은 주된 이유 ③지적재산권 취득 계획
〈PartH〉	①정책 및 제도	①정부지원사업 인지도부_인력육성

구 분	조사 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정부 지원 현황 (27개 문항)	인지/활용 경험/도움 정도 ②경영상 애로사항 ③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④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②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제작지원 ③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유통지원 ④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제작 인프라 지원 ⑤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창업 지원 ⑥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⑦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인력육성 ⑧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제작지원 ⑨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유통지원 ⑩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제작 인프라 지원 ⑪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창업 지원 ⑫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⑬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인력육성 ⑭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제작지원 ⑮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유통지원 ⑯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제작 인프라 지원 ⑰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창업 지원 ⑱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⑲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인력육성 ⑳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제작지원 ㉑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유통지원 ㉒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제작 인프라 지원 ㉓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창업 지원 ㉔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㉕경영상 애로사항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우위 부분 ㉖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취약 부분 ㉗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보 지원 방안
〈PartI〉 코로나19 관련 사항 (10개 문항)	①매출액 변화 ②고용인원 변화 ③피해현황 및 어려움 ④대응방안 및 현재 어려움 ⑤정부지원사업 현황	①2019년 대비 매출액 ②2019년 대비고용인원 변화 ③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④코로나19 예전으로의 경영상황 회복 예상 ⑤코로나19 피해유형 ⑥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수혜경험 ⑦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수혜내용 ⑧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⑨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안정 지원 지원사업 현황 ⑩일자리 안정 지원 지원사업 받지 않은 이유

출처: 한국공예디자인산업진흥원(2023),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연구진 재구성.

- 〈PartD〉는 '수출/수입 현황'으로 7개 항목임. 조사항목은 ①수출입 현황, ②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③해외 판로개척/확대 의향 등으로 구성되었음
- 〈PartE〉는 '채용 및 대외 활동 현황'으로 9개 항목임.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①신규직원 채용경험,



- ②가장 많이 채용한 분야, ③2022 신규채용인원 또는 향후 신규채용 현황, ④직/간접 정보습득, ⑤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음
- <PartF>는 '재무현황'으로 14개 항목임.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①매출액 및 비중, ②지출 및 운영비, ③자금조달방법 및 비중, ④코로나19 이전/이후 자금사정 변화, ⑤전년 대비 사업실적 변화, ⑥향후 사업전망 및 예상 매출액 등으로 구성되었음
- <PartG>는 '기술 보유 현황' 3개 항목임. 주요지표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으로 구성되었음
- <PartH>는 '정부 지원 현황'으로 27개 항목임. 주요항목은 ①정책 및 제도 인지/활용 경험/도움 정도, ②경영상 애로사항, ③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④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음
- <PartI>는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10개 항목임. 주요항목은 ①매출액 변화, ②고용인원 변화, ③피해현황 및 어려움, ④대응방안 및 현재 어려움, ⑤정부지원사업 현황 등으로 구성되었음

### 3. 타 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 검토

- 본 조사의 조사항목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타당성이 입증된 유사 설문지에서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기존 조사표의 개선점을 도출함
- 조사항목 비교 검토는 「2021년 콘텐츠산업 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1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광고산업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등 문화예술분야 3종 산업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함
- 문화예술분야 3종 산업조사의 조사항목 구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2021년 콘텐츠산업 조사」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체 기본 정보와 함께 매출액, 지출액, 영업현황, 종사자 현황, 해외거래 현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2021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체 현황, 매출규모, 주요사업 분야, 인원/종사자 현황, 해외거래 현황, 정부지원현황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2020년 광고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체 정보와 매출액, 비용 등 상세 재무상태, 종사자 고용 현황, 해외 거래 현황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와 다른 실태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사업체 현황, 재무현황, 종사자현황, 정부지원현황, 해외거래현황과 같은 산업조사 항목과 더불어 애로사항, 인지도, 중요도, 참여의향과 같은 실태조사(인식조사) 항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 해외거래 현황과 관련하여 해외 박람회, 전시회 등 해외판로 확대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다른 조사와 차이점을 보임. 그러나 수입보다는 수출에 대한 항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출 국가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음

- 반면에 「2021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해외 진출 현황 관련하여 진출해 있는 해외 주요국가 및 최초 진출한 경로, 향후 진출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음
- 「2021년 콘텐츠산업 조사」의 경우 해외거래(수출·수입) 여부, 연간 총 수출입액(달러), 업종별 수출입액 비중, 업종별 수출입액 국가·대륙별 비중을 묻고 있음
- 「2020년 광고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해외 거래 현황과 관련하여 거래유형별 거래여부, 거래국가, 거래건수, 취급액(매출액) 등에 대한 조사문항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2〉 문화예술분야 산업조사 조사항목 비교표

내용 구분	공예산업 실태조사	콘텐츠산업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광고산업조사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등 대표자 정보 (성별, 연령) 사업체 형태 등	사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등 대표자 정보 (성별, 연령)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등	사업체 형태, 주소, 설립연도 ,	사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설립연도, 사업자 등록번호 등 대표자 정보 (성별, 연령)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등
사업체 기본현황 매출액, 지출액, 영업현황	주요 업종 및 세부업종, 공방 운영 여부 및 운영사업별 비중, 대표 공예품 (품명, 소재 및 용도, 판매가격 등)	연간 총 매출액, 업종별 매출액 비중(5개) 재무재표 작성여부, 부가가치액	코스닥 상장 여부, 사업 분야/ 주요 사업 분야, 자본금 및 매출액, 해외지사 현황, 매출규모 (매출액 구성 등)	연간 총 매출액, 영업비용 재업종별 취급액, 세부 분야별 비중, 재무재표 작성여부, 부가가치액
종사자 현황/ 채용 및 대외현황	사업체 종사자 현황, 신규채용 및 채용분야, 신규채용 계획 및 구인경로, 공예 관련 사업정보 습득 경로, 단체 및 협회, 협동조합 가입 및 목적, 도움 정도	연간 총 종사자 수,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고용형태별 종사자수 (정규, 비정규, 파견) 성별, 연령, 학력, 직무별 종사자 수	대중문화예술인, 소속연습생, 소속직원 등 (분야별, 성별, 연령별), 구인경로, 계약기간, 4대 보험 가입 현황 등	종사자 고용 현황 (종사자 지위별, 성별, 연령, 학력, 직무) - 채용규모, 향후 인력 예상 운영 계획
해외거래현황	수출 및 수입 경험, 2021년 수출실적, 공예품 수출 애로사항,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험, 해외 판로 확대 의향	연간 총 수출/수입액, 업종별 수출/수입액 비중, 주요권역(국가)별 수출/수입 비중	해외진출 주요 국가 최초 해외 진출 경로 향후 진출 희망 국가	거래 유형별 거래국가, 건수, 취급 및 매출액
정부지원현황	정책 및 제도 인지/활용 경험/도움 정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해외 진출 관련 지원	

내용 구분	공예산업 실태조사	콘텐츠산업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광고산업조사
	경영상 애로사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비고	제조/생산-어려움, 중요도, 중요 판매처, 신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개선, 유통/판매-거래처 보유현황, 납품경로, 주요 판매처, 어려움, 중요도 재무현황, 기술보유현황, 코로나19 관련 사항		표준계약서 주52시간 근무제 코로나19 관련 사항 국내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평가, 법적 분쟁 등	업종별 별도 조사표, 수수료 비중 취급 및 매출액, 분기 체감(동향)

-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타 산업조사 대비 정부지원 관련 조사항목이 많음
  - 「2021년 콘텐츠산업 조사」, 「2020년 광고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21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정부의 지원 사항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사항과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부지원 요청사항 단 2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 상기 검토 내용과 대조적으로,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정책 및 제도 인지/활용 경험/도움 정도, 경영상 애로사항,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 등 정부지원 관련 조사항목이 22개임. 이는,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정부지원현황 조사항목이 타 산업조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4. 조사항목 개선 필요사항

-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의 조사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예산업조사’와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인식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실태조사임
- 큰 틀에서 이 조사는 산업조사의 틀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체 기본현황, 제조/생산, 주요 사업 내용, 수출입 현황, 채용 및 대외활동, 재무현황, 기술 보유 현황, 정부 지원 현황,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 또한, 사업체 공예품의 강점, 애로사항, 재교육 희망 프로그램, 유통과정의 어려움 등 공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표를 검토함
  - 1차적으로, 연구진들이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표 검토회의를 실시함
  - 연구진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 2인에게 조사표 개선 자문을 수렴함
  -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포함, 문화예술분야 실태조사 4종의 조사표 구성을 비교함
- 조사표 개선 사항은 앞서 단계별로 검토한 내용(연구진 및 자문위원의 조사표 검토 의견, 문화예술분야 실태조사 조사표 비교 내용)을 토대로 다섯 가지 사항으로 도출함

## 1) 산업조사와 실태조사 항목 분리 필요

- 첫째,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타 산업조사에 대비 조사문항이 많음
  - 본 조사의 주기가 3년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문항(세부지표 134개)이 다소 많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되는 다른 콘텐츠 분야의 산업조사와 비교할 때 주요지표와 세부지표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표 4-2> 비교표를 살펴보면, 다른 산업조사와 본 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려움’, ‘중요도’, ‘도움정도’, ‘참여의향’ 등과 같은 인식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예디자인산업진흥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 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① 산업조사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② 산업조사와 실태조사(인식조사)를 함께 실시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산업조사와 실태조사(인식조사)를 같이 실시할 경우 응답자의 편의 및 조사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두 조사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 2)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조사항목 제외 검토

- 둘째, 조사항목의 정책적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또는 세부항목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항목인지를 검토하여 정책적 활용이 낮은 항목의 경우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PartI> 코로나19 관련된 지표는 향후 조사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PartA> 사업제 기본현황 중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 일부 세부지표는 정책적 활용도를 살펴본 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함

### 3) 세부항목의 설문구조 변경

- 셋째, 응답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의 설문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사업체 기본정보'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업체 정보를 모두 묻은 다음에 대표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응답자로 하여금 더 수월하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판단됨
  - 또한, 〈PartA〉 사업체 기본현황의 경우 현재는 ①주요사업(업종), ②공방운영, ③종사자 현황, ④대표제품/소재/용도/가격 등의 순서로 묻고 있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4~A10 문항의 경우 '주로 취급(제조 및유통)하는 공예품 또는 공예 관련 제품의 형태'에 대해 묻은 뒤 '종사자 현황',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현황', 그리고 '대표제품/소재/용도/가격'을 묻는 문항의 순서로 이어짐
  - 설문구조 상 '주로 취급(제조 및유통)하는 공예품 또는 공예 관련 제품의 형태', '대표제품/소재/용도/가격', 그리고 '종사자 현황',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현황'이 이어져야 응답자의 응답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여겨짐
  - 이 외에도 〈PartC〉 유통 및 판매 현황 〈PartF〉 재무현황, 〈PartH〉 정부 지원 현황 등에서 세부지표의 응답순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4) 수출입현황 문항 확대

- 넷째, 주요 수출입 국가 등 수출입 현황 문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타 산업조사와 비교할 때 공예산업의 수출입 현황 문항이 다소 적은 것은 물론 공예 관련 사업체가 영세하여 수출입을 하는 비율이 매우 적음
  - 그러나 공예품의 수출은 우리나라 문화체육콘텐츠 분야의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입 현황 문항을 늘릴 필요가 있음

### 5) 공예산업 관련 협회·단체의 현황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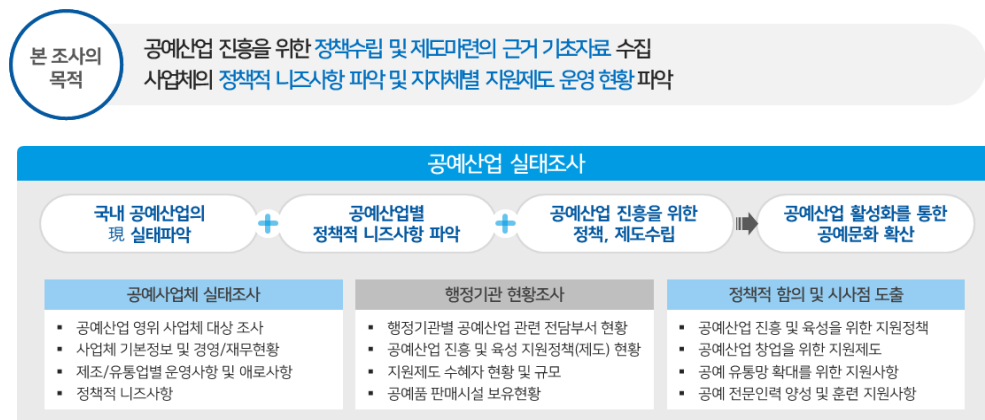
- 다섯째, 공예산업 관련 협회·단체 및 공예사업체 현황과 정책적 니즈의 파악이 필요함
  - 협회·단체 조사의 경우 공예산업 관련 협회·단체의 인력구성, 지원사업 내역 등 현황을 파악하며, 더불어 협회·단체에 등록된 공예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사업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분야 사업체 전반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정책적 니즈,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2절. 조사표 개선

- 본 절에서는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된 조사표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항목 개선 방향 및 전반적인 조사항목 변경(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개선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사문항(문구)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개선 사항을 제시하지 않음

### 1. 조사항목 개선 방향

- 일반적인 산업조사의 경우 산업 전체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본 조사의 경우 사업체의 정책적 니즈사항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다른 산업조사와 차이를 보임



출처: 한국공예디자인산업진흥원(2023),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그림 4-1] 공예산업 실태조사 목적

- 연구진은 다음의 4단계를 거쳐 조사항목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 ❖ 1단계 : 조사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그에 따라 조사항목간 분리가 필요함
  - 산업조사 파트와 실태조사 파트 각각의 결과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에 대한 활용 목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2단계 : 파트별 주요항목을 선정하고 타 조사 주요항목과의 비교 검토가 필요함
  - 조사 파트별 주요항목을 선정하며, 타 조사 주요항목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주요항목을 선정함.

조사결과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제외하고, 향후 활용도가 높은 항목은 추가함

❖ 3단계 : 최종 주요항목을 기준으로 세부항목을 재조정하는 층위 구분이 필요함

- 재정의하고 주요항목별로 세부항목을 재조정하여 설문구조가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 4단계 : 층위 구분을 구체화한 이후 전반적으로 구조 변경 또는 삭제를 재검토함

- 일부 항목의 경우 파트로 나누어 배치할 것인지, 삭제를 검토할 것인지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함.  
그 외 세부적인 세부문항 개선의견을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 2. 조사항목 변경(안)

- 연구진은 이러한 조사목적중심으로 현재의 조사항목이 조사목적과 사용목적에 맞는지를 검토하였음. 특히, 타당성이 입증된 유사 설문지에서 관련 항목을 검토하여 기존 설문지의 조사항목의 개선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1) 산업조사와 실태조사 항목 분리 필요

- 본 조사는 2개 Part로 구분하여 Part1은 산업조사 항목인 사업체 기본정보와 사업체 기본현황, 고용 및 채용 현황, 재무현황, 지원사업 참여 현황 등의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조사항목 구조 상 산업조사 문항 뒤에 배치되어 있었던 실태조사(인식조사) 항목은 Part2로 분리하여 구성하며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 사업체의 공예품의 감정,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사업 전망,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순으로 설문구조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2) 활용도가 낮은 조사항목 제외 검토

- 조사문항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조사문항을 삭제 또는 축소해야 할 필요 있음
- 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134개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3년 주기 조사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타 산업조사 대비 문항이 많음
- 실태조사(인식조사) 항목 중 애로사항, 기획-제조/생산-유통 단계별 어려움, 기획-제조/생산-유통 단계별 중요도, 유통 단계별 어려움, 유통 단계별 중요도 항목까지 총 24개의 항목으로 구성됨. 이 중 경영상 애로사항, 유통/판매 납품 시 애로사항, 제조/생산업체 납품받을 때 애로사항, 판로 개척 시 애로사항 총 4개 문항을 제외한 조사항목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PartH〉 정부 지원 현황 역시 타 조사 대비 지나치게 많은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 정부승인통계인

「2021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2020년 광고산업조사」의 경우 정부지원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1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정부의 지원 사항으로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사항과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부지원 요청사항 단 2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음. 본 조사에서는 정부지원 현황 중 참여경험, 참여희망,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항목만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외 항목은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항목에 대한 조사 활용도도 검토하여 삭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세부항목의 설문구조 변경

- 조사표의 논리적 흐름을 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 세부항목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사업체 기본정보의 경우 사업체 기본정보에 사업체/대표자 정보가 혼재되어 있음. 이를 사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로 분리하여 조사항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PartA〉 사업체 기본현황의 경우 현재의 문항은 주요사업(업종)을 묻고 주로 취급하는 공예품을 묻고 있으나 그 사이에 종사자 현황과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묻어서 사업체 기본현황에 대한 설문구조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무엇을(대표 공예품), 어떻게 생산/제조/유통하는지(주요 업종)를 먼저 파악하며, 그 이후 공방 운영 여부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묻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욱 매끄러운 설문구조를 보인다고 판단됨
  - 〈PartE〉 채용 및 대외 활동 현황의 경우 〈PartA〉 사업체 기본현황의 현재 고용현황을 묻은 후에 채용을 묻는 순서로 변경하는 것이 논리적인 설문구조라고 판단됨
  - 〈PartA〉 사업체 기본현황의 공예 관련 전공 및 〈PartB〉 제조 및 생산 현황의 전문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항목에 대한 조사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두 문항을 함께 배치하여 묻는 것이 설문구조 상 보다 논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설문구조의 변경을 통해 응답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 오류도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더불어 조사 결과 처리 및 분석을 위한 시간 및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 4) 수출입현황 문항 확대

- 수출 금액 및 비중과 더불어 주요 수출 대상 국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PartD〉 수출/수입 현황은 수출 및 수입 경험과 과거 및 현재 수출 시도 경험, 전년도 수출금액 및 비중, 애로사항 등을 묻고 있음.
  - 더불어 공예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값싼 중국산 공예품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주요 수입 국가와 금액 및 비중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공예산업 관련 협회·단체의 현황 파악

- 협회·단체 조사의 경우 공예산업 관련 협회·단체의 인력구성, 지원사업 내역 등 현황을 파악하며, 더불어 협회·단체에 등록된 공예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사업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겹개로 해당 분야 사업체 전반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또는 정책적 니즈,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4-3〉 공예산업실태조사 조사표 변경(안)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사업체 기본 정보	사업체/대표자 정보	사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대 사업체 설립년도 사업체 형태 사업체 구조 대표자 경영형태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사업체 팩스번호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사업체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사업체 팩스번호 사업체 설립년도 사업체 형태 사업체 구조	문항 순서 변경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대표자 성별 대표자 연령대 대표자 경영형태	
〈PartA〉 사9업체 기본현황	주요사업(업종)	주요사업(업종) 겸업의 경우 매출액이 더 많은 업종	대표제품/소재/가격	주로 취급하는 공예품 또는 공예 관련 제품의 형태 대표적인 공예품	문항 순서 변경
	공방운영	공방 운영 여부 공방 운영시 공예품 사업 활동 비율 주요사업 관련 업종 코드		대표 공예품의 주된 소재 대표 공예품의 주된 용도 대표 공예품의 판매가격	
	대표제품 형태	주로 취급하는 공예품 또는 공예 관련 제품의 형태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종사자 정보로 이동
	종사자 현황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여성 종사자 현황			
	전공 및 전문교육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주요사업(업종)	주요사업(업종) 주요사업 관련 업종 코드 겸업의 경우 매출액이 더 많은 업종	전통(전승)공예 여부 추가
	대표제품/소재/가격	대표적인 공예품 대표 공예품의 주된 소재 대표 공예품의 주된 용도 대표 공예품의 판매가격		공방 운영 여부 공방 운영시 공예품 사업 활동 비율	

제4장 조사표 개선(안)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PartB〉 제조 및 생산 현황	기획-제조/생산-유통 단계별 어려움/중요도	어려움_사업기획 어려움_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어려움_제품생산 어려움_상품 포장, 홍보 및 마케팅 어려움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인식문항 파트로 이동
		중요도_사업기획 중요도_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중요도_제품생산 중요도_상품 포장, 홍보 및 마케팅 중요도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제작.제조 시 고려사항	
	제품 신규출시 및 개선	제품 신규출시 및 디자인/기능 개선 경험 제품 신규출시 및 디자인/기능 개선 이유	제품 신규출시 및 개선	제품 신규출시 및 디자인/기능 개선 경험 제품 신규출시 및 디자인/기능 개선 이유	
	사업체 제품의 강점	제품의 강점	유통 /판매 주된 판매처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  제품 주된 판매처	인식문항 파트로 이동
	제품 유통 경로	제품의 유통/판매 경로 제품 유통/판매 납품 시 애로사항			
	제품 주된 판매처	제품 주된 판매처			
	판로개척 애로사항	판로 개척 시 애로사항			
	공예 관련 교육사업	공예 관련 교육 운영 현황 교육 주된 참가대상 교육 시 주 교육장	공예 관련 교육사업	공예 관련 교육 운영 현황 교육 주된 참가대상 교육 시 주 교육장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재교육 애로사항 희망 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주체 재교육 애로사항 희망 프로그램	문항 순서 변경 또는 삭제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PartC〉 유통 및 판매 현황	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보유 여부 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주된 유형	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보유 여부 유통/판매 정기적인 거래처 주된 유형	
	제품 납품/판매 경로	제조/생산업체 납품받는 경우 제품 판매 경로 유통/판매업체 납품받는 경우 제품 판매 경로	제품 납품/판매 경로	제조/생산업체 납품받는 경우 제품 판매 경로 유통/판매업체 납품받는 경우 제품 판매 경로	
	제작-유통 제품 주 판매처	제조/생산업체 납품 애로사항 제작유통 제품 주된 판매처	제작-유통 제품 주 판매처	제품 주된 판매처_제조 및 생산 제품 주된 판매처_유통 및 판매	
		어려움_유통망 및 시장조사 어려움_제품 확보 어려움_포장 및 패키징 어려움_홍보 및 마케팅 어려움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중요도_유통망 및 시장조사 중요도_제품 확보 중요도_포장 및 패키징 중요도_홍보 및 마케팅 중요도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인식조사로 파트 변경 또는 삭제 검토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경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경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경로	
〈PartD〉 수출/수입 현황	수출/수입 현황	수출 및 수입 경험 과거 또는 현재 수출 시도 경험 2021년 공예품 수출금액 2021년 공예품 수출금액 비중	수출/수입 현황	전년도 공예품 수출입 경험	
				전년도 공예품 수출금액 전년도 공예품 수출금액 비중 전년도 공예품 주요 수출 국가(개) 전년도 공예품 수입금액 전년도 공예품 수입금액 비중	신규문항

## 제4장 조사표 개선(안)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공예품 수출 애로사항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험 온라인 해외 유통 및 판매 사이트 등록 경험 해외 판로 확대 의향		전년도 공예품 주요 수입 국가(개) 과거 또는 현재 수출 시도 경험 공예품 수출 애로사항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경험 온라인 해외 유통 및 판매 사이트 등록 경험 해외 판로 확대 의향	문항 순서 변경
〈PartE〉 채용 및 대외 활동 현황			고용현황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여성 종사자 현황 공예 관련 전공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이동
	채용	신규직원 채용경험 가장 많이 채용한 분야 0 신규채용인원 또는 향후 신규채용 현황 신규채용 및 인력 수급시 구인 경로	채용	전년도 신규직원 채용여부 전년도 신규채용인원 가장 많이 채용한 분야 신규채용 및 인력 수급시 구인 경로	
	정보습득	사업정보 직/간접 정보습득 여부 사업정보 직/간접 정보습득경로	정보습득	사업정보 직/간접 정보습득 여부 사업정보 직/간접 정보습득경로	
	대외활동	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여부 가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입목적 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도움여부	대외활동	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여부 가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입목적 공예 관련 단체, 협회, 협동조합 가입 도움여부	삭제검토
〈PartF〉 재무현황	매출현황	총 매출액 순수 공예 관련 매출액 순수 공예 관련 매출액 비중 제조/생산 업체_분야별 매출액 비중 유통/판매 업체_분야별 매출액 비중	매출현황	총 매출액 공예품 관련 매출액 공예품 관련 매출액 비중 제조/생산 업체_분야별 매출액 비중 유통/판매 업체_분야별 매출액 비중	
	지출현황	한 달 평균 지출비용 운영비 항목별 비중	지출현황	한 달 평균 지출비용 운영비 항목별 비중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자금조달 방법 및 비중 2022년 예상 매출액 2022년 사업 실적 2021년 대비 변화 자금사정 코로나 이전 변화 자금사정 코로나 이후 변화 향후 사업전망 향후 전망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자금조달 방법 및 비중 2022년 예상 매출액 2022년 사업 실적 2021년 대비 변화	삭제 검토  인식조사로 파트 변경 인식조사로 파트 변경
〈PartG〉 기술 보유 현황	기술보유 현황	지적재산권 취득/등록 현황 인증 및 특허 취득/등록하지 않은 주된 이유 지적재산권 취득 계획	기술보유 현황	지적재산권 취득/등록 현황 인증 및 특허 취득/등록하지 않은 주된 이유 지적재산권 취득 계획	
〈PartH〉 정부 지원 현황	인지여부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인지여부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인지여부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삭제검토
	참여경험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참여경험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경험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제4장 조사표 개선(안)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도움정도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도움정도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도움정도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삭제검토
	참여희망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참여희망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인력육성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제작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유통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제작 인프라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창업 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희망_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경영상 애로사항	경영상 애로사항			인식조사로 파트 변경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우위 부분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취약 부분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PartI〉 코로나19 관련 사항	매출액 변화	2019년 대비 매출액			삭제검토
	고용인원 변화	2019년 대비 고용인원 변화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 코로나19 예전으로의 경영상황 회복 예상			
	피해현황 및 어려움	코로나19 피해유형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정부지원사업 현황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 극복 정부지원사업 수혜경험 코로나19 경영상 어려움 극복 정부지원사업 수혜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안정 지원 지원사업 현황 일자리 안정 지원 지원사업 받지 않은 이유			
(신규) 실태조사 파트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우위 부분 우리나라 공예산업 경쟁력 취약 부분	
			사업체 공예품의 강점	제품의 강점	
			애로사항	경영상 애로사항 유통/판매 납품 시 애로사항 제조/생산업체 납품받을 때 애로사항 판로 개척 시 애로사항	
			기획-제조/생산 단계별 어려움	어려움_사업기획 어려움_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어려움_제품생산 어려움_상품 포장, 홍보 및 마케팅 어려움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삭제검토
			기획-제조/생산 단계별 중요도	중요도_사업기획 중요도_상품기획 및 디자인개발 중요도_제품생산 중요도_상품 포장, 홍보 및 마케팅 중요도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삭제검토
			유통 단계별 어려움 및 중요도	어려움_유통망 및 시장조사 어려움_제품 확보 어려움_포장 및 패키징	



제4장 조사표 개선(안)

구분	기존		변경(안)		비고
	주요항목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어려움_홍보 및 마케팅 어려움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중요도_유통망 및 시장조사 중요도_제품 확보 중요도_포장 및 패키징 중요도_홍보 및 마케팅 중요도_유통 및 판매(판로확보)	
			사업전망	향후 사업전망 향후 전망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	

### 제3절. 소결

- 본 연구에서는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2022년 실시된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진의 조사표 검토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문하였음. 또한, 문화예술산업 관련 실태조사 3종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항목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였음

#### 1. 산업조사와 실태조사 항목 분리

-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조사는 공예산업의 산업조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같이 실시함. 응답자의 편의 및 조사결과의 활용도 측면에서 산업조사와 실태조사(인식조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그 결과, 조사를 2개 Part로 구분하여 Part1은 산업조사 항목인 사업체 기본정보와 사업체 기본현황, 고용 및 채용 현황, 재무현황, 지원사업 참여 현황 등의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Part2는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 사업체의 공예품의 감정,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사업 전망,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순으로 설문구조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2. 설문구조 변경 및 활용도 낮은 조사항목 제외

-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위해 설문구조를 다소 변경할 필요가 있음. 우선, 조사 파트별 주요항목을 선정한 후 주요항목별로 세부항목을 재조정하여 설문구조가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이때 일부 세부항목의 경우 파트로 나누어 배치할 것인지, 삭제할 것인지 재검토하여 최종 결정함. 이러한 설문구조의 변경을 통해 응답 편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 오류도 감소할 것으로 여겨짐. 더불어 조사 결과 처리 및 분석을 위한 시간 및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음

#### 3. 수출입현황 문항 확대

- 다른 산업조사와 비교할 때 공예산업의 수출입 현황 문항이 다소 적음. 공예 관련 사업체가 영세하여 수출입을 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향후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해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출입현황에 대한 조사문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주요문항으로는 수출 금액 및 비중과 더불어 주요 수출 국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예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값싼 중국산 공예품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주요 수입 국가와 금액 및 비중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 공예 관련 협회·단체 조사 필요

- 많은 분야에서 동종업종 관련 정보획득 및 전문성 함양에 있어 협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이 개별 사업체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협회·단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에도 협회·단체 조사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협회·단체 조사의 경우 공예산업 관련 협회·단체의 현황 및 협회·단체에 등록된 공예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모집단 구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이와 같이 협회·단체의 등록 사업체 현황이 파악될 경우 공예사업체의 모집단을 구축 시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제5장

---

## 공예산업 실태조사 체계 개선(안)

---

### 제1절. 조사체계 개선

1. 정확한 조사대상, 모집단 구축
2. 국제 기준의 공예산업조사 작성 방향
3. 다업종 통계산출 처리 방안
4. 조사주기 단축

### 제2절. 공예산업 실태조사 추진 방향

1. 분류체계 개선(안) 반영
  2. 실태조사 진행 시 절차별 점검 사항
  3. 타 통계와의 연계 · 활용 방안 모색
  4. 기타
-



## 제5장. 공예산업 실태조사체계 개선(안)

### 제1절. 조사체계 개선

-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2019년 기준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공예산업분류(소분류)가 매칭된 60개 업종의 총 148,792개 중 공예산업 영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발견조사 대상 목표 모집단으로 42,513개를 활용함
  - 통계청의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2016)에 의하면, 정확히 공예산업 영위 사업체 규모를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2~3년간 조사 대상인 모집단 크기의 경험적 규모에 근거하여 30%로 규정하고 약 4만개 사업체를 목표모집단으로 규정함

〈표 5-1〉 2022 공예산업실태조사 모집단 및 표본 현황

구 분	내 용		
목표 모집단	- 전국사업체조사 결과(2019년 기준) - 발견조사 대상 : 공예 관련 업종(제조, 도/소매) : 42,513개		
사전 확인 조사	- 42,513개 사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사전확인 조사내용	공예 관련 사업운영 여부	
		사업체의 주요 업종	
		수공예 공정 비율	
		공예 관련 제품 소재	
		종사자 수	
	- 사전확인조사 결과		
	확인 결과	사례수	비율(%)
	공예사업체	7,118	16.7
	거절(공예사업체)	725	1.7
	거절	3,181	7.5
	담당자 부재	3,488	8.2
	공예사업체 아님	1,517	3.6
	비수신	1,794	4.2
휴/폐업	24	0.1	
중복	696	1.6	
결번 및 오류	23,970	56.4	
합 계	42,513	100.0	
유효 응답자	- 실태조사 회수자료 5,085개 중 적정성 검토 후 최종 5,000개 사업체		

출처 : 2022년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p12

## 1. 정확한 조사대상, 모집단 구축

- 공예산업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 대한 범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0페이지에서 제시한 ‘공예사업체’와 ‘공예품’의 기준 중 제조 및 유통으로 구분되는 사업체, 예술작품으로서의 공예품은 제외가 되는 기존의 공예산업실태 조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2019년까지는 종사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결과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변경하였으나 산업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기존의 공예산업실태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불명확함
  - 목표모집단은 조사목적에 따라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모집단을 말하므로 정확하게 숫자로 규정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님. 예를 들어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전체 사업체’ 또는 ‘종사자규모 50인 미만의 공예사업체 집합’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조사모집단은 실제 표본설계를 위해 규정하는 모집단으로 예를 들면 ‘공예산업분류체계와 매칭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종사자규모 50인 미만, 공예 관련 매출액 30% 이상인 사업체’로 구체적인 범위로 규정되어야 함
  - 공예 관련 산업의 발걸음을 적용하여 전체 산업에서 공예산업 모집단을 추정한 ‘추정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 추정모집단이 목표모집단인지 조사모집단인지 근거가 불명확함. 발견조사도 기존의 타조사에서 판별조사, 접격률 조사, 현장 발굴조사 등 여러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음
- 경험적 모집단 정보에 근거한 공예산업 모집단에 대한 범위가 혼재되어 있음
  - ‘공예산업분류와 매칭된 60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의 규모 중 30%의 경험적 공예산업 규모’라는 기준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공예산업의 일상적 확장과 같은 사회적 동향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새로운 모집단 구축 및 정비 과정이 필요
- 활용가능한 사업체조사 모집단 외 2차 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신규 사업체를 추가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기존의 활용가능한 2년 기준의 사업체조사 명부는 연락처 손실과 소상공인의 잦은 휴폐업률, 산업분류내 고려될 수 없는 프리랜서 사업체 등 표본틀로 활용하기 한계점이 있음. 공예사업 공모사업체 리스트, 협회 및 단체 리스트 등 추가 경로를 통해 가능한 신규 모집단 리스트를 확보해야 함



## 2. 국제 기준의 공예산업조사 작성 방향

-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일본의 해외사례에서 공예산업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정확한 모집단, 산업분류와의 연계, 정확한 통계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 국가별 산업분류 중 공예 관련 분류체계를 추정할 뿐, 통계산출을 위해 산업분류를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지 않음. 해외사례의 공예시장 규모는 취미공예분야의 소비시장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규모 산출은 뚜렷한 국제 결과를 알 수 없음
  - 국내에서도 매칭하고 있는 기존의 공예산업분류도 제조업 및 유통업(도소매업)과 정확히 매칭되는 공예산업을 명확히 정비하기 어려움. 공예산업 영위 사업체 비중이 경험적으로 20~30%로 낮아 연계표 활용이 타당한지 우려가 있음
  - 실제 2021년 기준의 전국사업체조사의 품목 변수를 기반으로 ‘공예’ 관련 사업체를 검색한 결과 연관성 높은 60개의 업종분류 외 타분야 업종(교육 등)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연계표 활용시 공예산업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 공예산업은 국제적 기준으로 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에 한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없음. 제조업과 유통업 및 서비스업 전반에서 공예산업의 범위를 확인 및 확장할 필요 있음

## 3. 다업종 통계산출 처리 방안

- 한 개의 사업체가 다업종으로 중복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에 대한 통계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함
  - 공예산업의 특성상 한 개의 사업체가 제작 및 유통, 교육 및 체험업 등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산업활동별 매출액 또는 종사자 규모를 분배하고 추정하기 쉽지 않음
  - 실제 조사가 가능한 표본이 크지 않은 경우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 산출공예산업의 특성상 한 개의 사업체가 제작 및 유통, 교육 및 체험업 등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산업활동별 매출액 또는 종사자 규모를 분배하고 추정하기 쉽지 않음

## 4. 조사주기 단축

- 기존의 3년 주기 공예산업실태조사의 주기를 변경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를 산출할 필요 있음
  - 예술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한 예술산업조사(가안)는 매해 조사를 목표로 기획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계의 활용을 위해 1~2년 주기의 조사로 조사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공예산업의 특성상 종사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많으므로 휴폐업률이 높은 산업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기 단축이 필요함

## 제2절. 공예산업 실태조사 추진 방향

### 1. 분류체계 개선(안) 반영

-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기준 변경으로 예상되는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주요 변화를 고려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을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함. 1안은 공예산업의 소재별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하며, 2안은 공예 산업활동(가치사슬) 중심의 분류 기준으로 설계함

〈표 5-2〉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 비교

구분	1안(공예소재 구분)	2안(공예 산업활동)
모집단 구축	- 소재별 모집단 구축 불가	- 대분류별 모집단 구축 가능
파일럿 시범조사 필요	- 본조사 시행 (개정된 분류 검증 불필요, 예산 절감)	- 시범조사 시행 (변경된 분류체계 검증, 예산 확보 필요)
통계 산출 규모	- 공예 소재별 산업 규모 상이	- 공예산업 활동별 통계 산출
예술산업 특수분류 비교	- 예술산업 특수분류와 상이한 분류체계	- 예술산업 특수분류와 동일한 분류체계
최신 동향	- 시설, 서비스업, 교육업 반영 어려움	- 최신 공예산업 추세 반영

-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분류체계 변경 시,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기존조사 결과와의 비교 가능, 즉 시계열의 연속성 유지 가능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2안의 분류체계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전과 다른 산업분류, 모집단 구축 방법으로 시계열 단절 및 통계산출 규모 등의 변화가 예상됨. 즉, 기존과 상이한 기준의 공예산업 분류체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선행된 실태조사의 결과와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함
- 반면, 분류체계 1안으로 선택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모집단 및 통계값 변동을 최소화한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와 시계열을 유지할 수 있음
-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안)을 적용한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시범조사 수행이 필요함
  -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3년 주기의 법령기반 통계로 2025년 조사가 예정되어 있음. 공예산업 실태조사 수행 시 분류체계의 기준이 기존 조사와 상이할 경우, 본조사 진행에 앞서 변경된 분류체계가 실제 조사작성 과정 중에 미칠 영향과 결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분류기준 및 조사체계 변경 사항 등이 실제 조사에 적용되었을 때,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자의

적정성, 조사문항의 적성성 및 응답률 등 향후 본 조사의 시행에 앞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임

- 단, 분류체계 개선(안)을 1안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기 구축된 공예산업 모집단 활용과 연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된 분류체계에 대한 검증을 위한 시범조사는 생략할 수 있음

## 2. 실태조사 진행 시 절차별 점검 사항

- 통계품질의 제고와 환류 개선을 위해 통계작성 과정이 절차별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함
  - 통계작성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통계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통계청(2019)이 통계대행 및 컨설팅 수요기관의 통계작성 지원을 목적으로 발간한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기 용이함
  -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승인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통계작성 승인 등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작성 절차에 적용 가능함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은 국가승인통계 대행기관 및 수요기관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통계작성
  - 시범조사 시 통계작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기존 조사와의 변경 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예산업 실태조사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9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통계청 가이드라인에서는 통계작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9단계 기준으로 제시함. 이 중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통계 생산시스템은 실태조사 실사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진행 절차에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함
  - 조사통계 작성절차 8단계는 ① 조사기획(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 ② 조사설계(조사 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모집단 및 표본 설계, 자료처리 계획 등) ③ 조사진행(조사 사전준비, 조사원 모집 및 교육, 현장조사 등) ④ 자료 수집(조사표 입력, 조사결과 검증 등), ⑤ 처리(코딩 및 자료보완, 결측치 처리, 가중치 계산) ⑥ 분석(통계산출물 검증 및 확정, 분석보고서 작성), ⑦ 배포 ⑧ 통계자료 관리 ⑨ 품질개선 등의 단계로 이루어짐
  - 통계작성 단계 중 ‘조사 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모집단 및 표본 설계’, ‘자료처리 계획’ 등이 포함된 절차는 ② 조사설계에 해당됨.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 및 표본, 조사표 및 기준분류 등이 변경될 경우, 조사설계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과 이력 관리가 특히 중요함
- 통계작성 절차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조사와 비교 가능한 신규 대조표 작성 등을 통해 조사 이력 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 신규 대조표는 조사표 변경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 절차 각 단계 발생하는 변경 사항 전반(조사방법, 모집단, 분류체계, 표본수 변경 등)에 적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또한 변경 사유의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통계작성 변경 사유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함

- 대조표 작성 시 개선, 삭제, 신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비 과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조사표 부분임. 기존 조사표에서 삭제한 문항 또는 신규 추가 문항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삭제한 문항은 신규 대조표에 포함하지 않고, 유지문항과 신규추가 문항을 중심으로 대조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직 함
- 주요 변경 이력 사항은 보고서에 기재하여 이용자 혼란 최소화와 편의성을 제고해야 함
  - 통계작성 절차별 점검 및 신규 대조표 작성 등은 통계생산자 측면에서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항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리된 주요 사항은 통계결과를 정책수립과 연구 등에 활용하는 통계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통계작성 기관에서는 보고서의 일러두기 및 조사연혁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함
  -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보고서 내에 조사연혁(각 조사 시행 연도별 변경 사항 등)을 수록하여, 가장 최근년도 발간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변경 이력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3. 타 통계와의 연계·활용 방안 모색

- 예술산업조사와의 연계·활용 방안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함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진행한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을 기반으로 예술산업조사를 실시 예정할 예정임(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은 본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함)
  -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은 산업활동의 가치사슬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예산업도 예술산업 특수분류 내의 한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음.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안)의 공예산업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예 산업활동 기준’의 분류체계 변경(2안)과 동일함
  - 따라서,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2안으로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예술산업조사와 동일한 분류체계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결과를 예술산업조사에서 인용하기가 용이함. 즉, 2007년부터 명맥을 이어온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가치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함
  - 따라서, 공예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변경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공예산업과 예술산업 간 일관성 있는 분류체계 구축을 통해 두 통계 간의 비교가 가능함. 다만, 공예산업실태조사와 예술산업조사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협조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아울러, 분류체계 변경 1안(공예산업 소재 중심)으로 공예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예술산업조사의 분류체계는 산업활동이 기준이므로, 공예소재

구분에 따른 공예산업 실태조사의 결과는 예술산업 분류체계의 타 영역과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용이 불가능함

- 상기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공예산업 실태조사와 별개로 예술산업조사에서 공예산업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한다면, 동일한 산업에 대한 중복 조사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조사설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두 조사 간 동일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중복 조사가 진행된다면, 두 조사의 결과 모두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공예산업 실태조사와 예술산업조사의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두 조사의 기획과 수행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및 조사수행기관 간 상호 협조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4. 기타

- 조사과정에서 축적되는 파라데이터(paradata)의 활용 방안 모색
  - 파라데이터(paradata)는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다양한 추가 데이터를 뜻하며, 조사 참여자 수와 완료자 수, 조사 참여자별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문항별 응답시간, 조사 대상자와 접촉한 횟수 또는 접촉 시도 횟수, 접촉 날짜 및 시각, 접촉방법, 조사현황 등이 해당됨<sup>38)</sup>
  - 파라데이터를 활용하면, 향후 실태조사 진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현장조사가 용이한 시간대, 조사표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분석하여 추후 현장 조사의 성공률을 높이고, 조사 응답 시간 관리,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기 어려워하는 조사 문항 등에 대한 정비 등에 활용 가능함
  - 과업지시서에 위탁용역의 산출물로 파라데이터를 포함하여, 조사결과 산출물(원데이터, 보고서, 통계표, 메타데이터 등) 외 조사과정 산출물도 수집하는 것을 고려해볼지 함
- 응답자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 방법의 추가적인 도입 고려
  - 현재 공예산업 실태조사는 일대일 방문면접조사와 이메일 및 팩스 조사를 병행하고 있음. 사업체 조사는 영업시간 내 방문 시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 컨택 시 이메일로 조사링크를 발송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는 방식 등이 병행 실시되고 있음
  - 최근에는 QR코드를 도입하여, 모바일을 활용한 통계가 시범적으로 등장함(외래관광객조사). 모바일로 조사링크를 바로 전달하는 방법은 이메일에 접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사표 접근성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음. 편의성이 있는 만큼 QR코드로 전달된 조사링크로 복수 조사를 막고, 조사링크가 무분별하게 복사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38) 네이버 지식백과 인용(<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19409&cid=40942&categoryId=31608>)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7),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2018~2020)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 2022 공예산업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 2021 공예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0), 2019 공예산업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7), 2015 공예산업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6), 공예산업실태조사 개선방안 추진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4), 2012 공예산업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2), 2011 공예산업 실태조사
- 양혜원, 전진영(2021), 문화예술산업 특수분류체계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
- 이원태(2011), 공예문화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외국사례 조사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23), 공예+디자인, No.57. p. 72.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2019), 공예 매개인력 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연구
- 통계청(2017),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
- 통계청(2019), 통계작성 단계별 가이드라인 : 통계대행 및 컨설팅 수요기관용
- 한국공예문화진흥원(2015), 공예산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
- 한국공예문화진흥원(2014), 공예산업 분류기준 및 분류체계 연구
- 한국공예문화진흥원(2005), 해외 공예 현황: 공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마케팅 조사
- 한국공예문화진흥원(2003), 국내 공예문화산업 분류체계 구축 및 공예지원사업 평가모델 개발
- 황동열, 이하나(2013), 한국과 일본의 전통공예산업 인증제도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16(1), p. 85-106
- American Craft Council(2020), The American Craft Council: 2020 Annual Report.
- Arts Council England(2021), Art, craft & design: a guide for governing boards
- Crafts Council(2020), The Market for Craft Commissioned by the Crafts Council and Partners
- Crafts Council(2014), Defining and measuring craft: a review for the Crafts Council
- Craft Organization Development Association(2011), The CODA Review 2011: Craft Artists,

Income, and the U.S.Economy.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2016),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Santagata, E. W., Translation, E., & Kerr, D(2009), White paper on creativity Towards an Italian model of development

The Cologni Foundation for the Métiers d'Art(2009), International Charter of Artistic Craftmanship

## [홈페이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공예문화산업\\_진흥법](https://www.law.go.kr/법령/공예문화산업_진흥법))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문화산업진흥\\_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문화산업진흥_기본법))

통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서비스(<https://www.k-stat.go.kr/metasvc/main>)

Confartigianato Liguria(<https://www.confartigianatoliguria.it/carta-internazionale-dellartigianato-artistico>)

Crown Commercial Service(<https://www.crowncommercial.gov.uk/>)

Merriam webster(<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craft>)

Scottish indigenous craft(<https://www.scottishindigenoucraft.org/survey>)

Scuola Mosaicisti Del Friuli(<https://scuolamosaicistifriuli.it/en/>)

伝統工芸青山スクエア(<https://kougeihin.jp>)





## 부 록

---

###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

---



##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2023), 예술산업 특수분류 개선 연구

- 예술산업과 한국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예술산업 특수분류(안)과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를 수록하였으며, 연계표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 분류명 중 “기타” 또는 “그 외 기타”에 속하는 경우 소분류 코드 1자리를 “9”로 함
  - 소분류가 하나 이상으로 분할되는 경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포괄범위가 완전 일치하지 않는 경우 “\*”로 표시함
  - 2023년 12월 기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이 공표, 고시될 예정(2024.1.3.)이나, 예술산업 시범조사와 관련된 조사모집단은 10차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연계표는 10차 분류로 연계함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비고
110	공연 창작·실연업	90121 90122 90123 90131 90132*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공연예술가 비공연예술가	
121	공연 기획업	90191* 94120* 94990*	공연기획업 전문가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122	공연 무대 제작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23	공연 기술지원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24	공연인 매니지먼트업	73901*	매니저업	
129	기타 공연 관련 기획·제작업	90191*	공연기획업	
131	공연장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132	연습장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139	기타 공연 시설 운영업	68112*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141	공연 입장권 예약·판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149	기타 공연 관련 유통업	90199* 47911* 4791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150	공연 교육업	85621 85501* 85629*	음악학원 일반 교과학원 기타 예술학원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비고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161	공연 장비업	26421* 2651* 27302* 47320* 47591* 76390*	방송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가전제품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162	악기·악보 제조·수리업	33201 33202 33209 59201* 95393*	건반악기 제조업 전자악기 제조업 기타 악기 제조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63	악기·악보 판매·대여업	46462 47593 59201 76299*	악기 도매업 악기 소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169	기타 공연 용품 판매·수리·대여업	76292* 76299*	의류 임대업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11	미술 창작업	90132* 73209	비공연예술가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221	미술 전시·기획업	75992* 94120* 94990* 7330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전문가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222	미술 상품·도록 기획·제작업	90199* 47611*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23	미술 설치·운송업	49303*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224	미술인 매니지먼트업	73901*	매니저업	
229	기타 미술 관련 기획·제작업	90199* 639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31	미술관 운영업	90221* 52109*	박물관운영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232	전시공간 대관업	68112*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241	화랑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42	미술품 경매업	46107*	그 외 기타 특정상품 중개업	
243	미술품 대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4	전시·행사 입장권 예약·판매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5	미술 상품·도록 유통업	47841* 90199*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9	기타 미술 유통업	73904* 90132* 33932*	물품 감정, 계량 및 건물 추출업 비공연 예술가 전시용 모형 제조업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비고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50	미술 교육업	85622 85501* 85629* 85669*	미술학원 일반교과학원 기타 예술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261	화방업	46452* 4761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262	액자·표구 제작·판매업	47842* 33933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표구 처리업	
269	기타 미술용품 판매·대여업	76299* 76390*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311	공예품 창작업	90132* 7320*	비공연예술가 전문 디자인업	
312	공예품 제작업	23221* 23229* 23129* 23191* 23199* 23919* 25999* 32091* 33110 33120 95393* 16291* 16292 16299* 16300* 17129* 17229* 32029* 13219* 13222* 13999* 14130* 14499* 15121* 15129* 15190* 15211* 3340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그 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가구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한복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21	공예 작품 유통업	47841* 4784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322	공예 생활용품 유통업	46433*	생활용 유라·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예술산업 특수분류(안)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코드	분류명	분류코드	분류명	비고
		47592* 46431* 47520* 46492 47830* 46417* 47422* 47421* 47440* 47599* 47912*	도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생활용 가구 도매업 가구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가정용 식물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330	공예 교육·체험업	85613* 85629* 85640* 85669* 85699* 91299*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예술학원 사회교육시설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341	공예산업 지원 서비스업	94120* 94990*	전문가단체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342	공예품 전시시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410	문학 창작·번역업	90132* 73902*	비공연예술가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421	문학출판업	58113*	일반서적 출판업	
422	문학인 매니지먼트업	73901*	매니저업	
429	기타 문학 관련 기획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430	문학 유통업	46453* 47611* 479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440	문학 시설 운영업(문학관 운영업)	68112* 90221*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박물관운영업	
450	문학 교육업	85501* 85669*	일반 교과 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501	예술 마케팅업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502	예술 저작권 위탁·관리업	73903* 64201* 71600*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503	예술 교육 매개 서비스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509	기타 예술 일반 서비스업	90199*	그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 수 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전 진 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전문위원)

### 공동연구

장 선 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석전문위원)

## 공예산업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장동광

발 행 처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연 구 기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12월

인 쇄 처 AMC

I S B N 979-11-92787-31-2

비매품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23 by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